

3-1-2015

남양주에서의 건강한 교회 개척 방안: 경천교회를 중심으로

Won Kyung Lee 이원경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이원경, "남양주에서의 건강한 교회 개척 방안: 경천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15.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N EFFECTIVE STRATEGY FOR PLANTING A HEALTHY CHURCH IN THE NAMYANGJU A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KYUNGCHUN CHURCH

written by

WON KYUNG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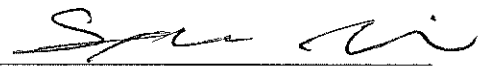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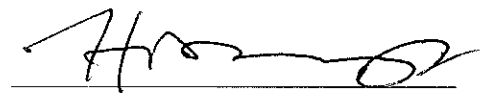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Seungkeun John Choi



Hyung Kook Oh



Jin Ki Hwang

March 1, 2015

**AN EFFECTIVE STRATEGY FOR PLANTING A
HEALTHY CHURCH IN THE NAMYANGJU A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KYUNGCHUN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WON KYUNG LEE

MARCH 2015

남양주에서의 건강한 교회 개척 방안
- 경천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최 승 근 교수

이 원 경

2015년 3월

Abstract

An Effective Strategy for Planting a Healthy Church in the Namyangju A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Kyungchun Church

Won Kyung Lee

Doctor of Ministry

2015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Korean church experienced staggering numerical growth in the past. But now it is not only stagnant, but has also declined—the result of a failure to be a biblically healthy community pleasing God. The purpose of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to present an effective strategy for planting a healthy church with a healthy pastoral theology and strategy to build it up.

This ministry focus paper consists of six chapters. Following the introductory chapter, chapter 2 surveys the definition,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hurch in terms of the people of God, the body of Christ, and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It then describes traits of a healthy church: a community concentrating on worshiping God, proclaiming the gospel, making disciples, and serving others.

Chapter 3 discusses church planting. After defining church planting and the types of church planting, this chapter argues that pastors who consider planting churches first need to confirm their calling, vision, leadership, and abilities and must establish sound pastoral philosophies. Also, this chapter insists that church planting needs to follow these steps and explains the significance of each step: meeting for prayer; deciding a location for planting a church after sufficient study; gathering key members; and preparing financial resources.

Chapter 4 describes the historical, geographical, and socio-cultural backgrounds of the Namyangju area with reasons why that area was selected for planting a church. Chapter 5 deals with the history and current state of the

Kyungchun Church. This chapter describes how the Kyungchun Church was planted with a vision of becoming a church that worships God only, educates its members, proclaims the gospel, and serves neighbors in the Namyangju area. It then describes and scrutinizes various ministries (such as family ministry, discipleship training, community service, planting other churches, etc.) carried out by the church in order to fulfill this vision. Chapter 6 concludes this ministry focus paper by summarizing the study.

Theological Mentors: Seungkeun John Choi, Ph. D.

Hyung Kook Oh, Ph. D.

Jin Ki Hwang, Ph. D.

감사의 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 여기까지 학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본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섬세하고도 학문적으로 논문을 지도해 주신 최승근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심사해주신 오형국 교수님과 항상 아낌없는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김태석목사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경천교회 안에서 행복한 목회할 수 있도록 서로 섬기고 헌신하는 경천교회 교인들과 장로님과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에게 학위의 영광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논문을 위해서 교수하시고 새로운 학문에 비전을 주신 권문상 교수님과 황진기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깊은 학문과 진리로 언제나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저의 영원한 스승이신 김세윤 박사님과 엄예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도와주고 격려해 준 사랑하는 친구요 동역자인 김호민 목사에게 고맙단 말을 전하며, 늘 기도로 말씀해 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신 아버지 어머니이신 존경하는 이만호 사관님과 장재열 구세군사관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눈 영적인 동역자인 사랑하는 아내 송일육 목사에게 충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예쁜 딸들 하은과 하경, 아들 도열이에게 감사의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전한다. 이렇게 박사학위 과정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2015년 3월 이원경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해	5
제 1 절 교회란 무엇인가	5
1. 교회의 정의	5
2. 교회의 특성	7
3. 교회의 본질	10
가. 하나님의 백성	11
나. 그리스도의 몸	12
다. 그리스도의 신부	14
라. 성령의 전	14
2 절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	16
1. 예배하는 교회	16
가. 예배의 정의	16
나. 예배의 대상	19
2. 선교하는 교회	20
3. 제자를 만드는 교회	24
가. 제자의 개념	24
나. 제자훈련의 정의	25
다. 제자훈련의 목적	27
4. 이웃을 섬기는 교회	28

제 3 장 교회 개척의 이론적 근거	30
제 1 절 교회 개척의 정의와 유형	30
1. 교회 개척의 정의	30
2. 교회 개척의 유형	33
가. 교회중심의 개척	33
나. 목회자 중심의 개척	34
다. 평신도 중심의 개척	34
라. 교회의 분류로 인한 개척	34
마. 독지가를 통한 개척	35
제 2 절 교회 개척의 올바른 방향	36
1. 분명한 소명의식	36
2. 목회자의 분명한 비전	38
3. 목회자의 리더십	39
4. 목회자의 자질	42
제 3 절 교회 개척을 위한 준비기도	44
1. 교회 개척 준비 기도의 중요성	44
2. 교회 개척 기도회	45
제 4 절 교회 개척 지역선정	45
1. 교회개척 지역 선정의 중요성	45
2. 지역조사 및 이해	46
제 5 절 교회개척 기초 멤버	48
1. 교회개척 기초멤버의 중요성	48
2. 교회 설립 기초 멤버의 유형	48
제 6 절 교회개척 재정마련	50
1. 교회 개척 및 시설 자금	51
2. 교회 운영 및 목회자 생활비	51
제 4 장 남양주 지역의 배경 및 특성과 지역선정 이유	53

제 1 절 남양주 지역의 지역적 배경	53
제 2 절 남양주 지역의 지리적 배경	54
1. 지리적 위치와 면적	54
2. 남양주시의 지형	55
제 3 절 남양주 지역의 사회문화적 배경	56
1. 사회적 배경	56
가. 인구현황 및 교육시설	56
나. 종교 현황	58
2. 남양주 지역을 선정한 이유	58
제 5 장 경천교회 개척 과정 및 성장 방안	60
제 1 절 경천교회 교회 개척 준비	60
1. 개척을 위한 준비기도	60
2. 목회자의 소명	61
3. 목회자의 설립 비전	62
4. 목회자의 목회철학	63
제 2 절 경천교회 개척 과정	65
1. 교회의 연혁	65
2. 가정에서 예배시작	66
3. 교회 개척지역의 상황	67
4. 교회 홍보	68
5. 교회 개척립과 성장	69
가. 개척 자립시대	69
나. 개척 성장시대	71
6. 진도를 위한 행사의 실제	74
가. 진도대 진도	74
나. 부서별 진도	75
다. 교회학교 진도	75

라. 봉사전도	76
제 3 절 경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전략들	77
제 4 절 경천교회가 세운 개척교회	85
제 5 절 경천교회의 교회 건축	86
1. 교회 건축부지 구입	90
2. 설계와 인테리어	91
3. 방송 음향	92
4. 교회 주차장	93
제 6 절 경천교회의 미래 목회 사역	94
1. 가정교회로 변화되는 목회사역	94
2. 가정 회복을 위한 복회사역	95
3. 평신도 지도자 육성 및 목회사역	96
4. 지역봉사(경천밥사랑공동체)의 활성화 사역	97
5. 중고등부 학교 설립 사역	97
6. 문화 목회사역	98
제 6 장 결론	99
부록	101
참고문헌	118
Vita	121

표 목 차

<표 1> 2014년 남양주시 인구수	57
<표 2> 남양주시 교육기관수	5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과 연구목적

한국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급속한 성장을 해 왔다. 그러나 요즘은 교회성장에 대한 자신감과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고 있다. 간혹 성장하는 교회가 있지만 대부분 미신자를 전도하기 보다는 기존 성도간의 수평이동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더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을 향한 교회로서의 사명과 위치를 잃어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그 여파는 성장의 정체 내지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교회는 예배드리는 횟수가 줄어들고 예배 참석자가 떨어지고 있고 예배시간이 짧아지고 있으며 일부는 예배를 형식과 외식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21세기 한국교회는 사회 문화적 다양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종교 다원적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성장 중심주의, 기복주의, 물량주의의 흐름은 복음의 정신과 신앙관 및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세속화를 가속화시켰다. 아울러 성도들은 자기중심적이며 종교 소비자의 차원에 머물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상업주의적인 몇몇 불지각한 목회자들이 교회를 기업화하고, 예배를 교회 부흥과 성장의 수단으로 전략시켜 사람 중심의 예배가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신뢰도는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로 외부로부터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성장의 정체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는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장의 정체가 직접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게 한다면 부정적 시선은 현재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2005년도 통계청의 인구 주택 총 조사에 의하면, 2005년 총 47,041,434명중 불교 인수가 10,726,463명으로 제일 많았고, 개신교가 8,616,438명, 천주교가 5,146,147명이다.¹⁾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체 교 인수가 2,852,125명으로 나타나 2010년 2,852,311명보다 186명 감소했다. 비율로 보면 0.01퍼센트 감소한 것에 불과하지만 지난 2002년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후 해마다 5만 명에서 10만 명이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총회는 그동안 교회 부흥 성장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반사운동, 300만 성도운동 등을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성장세가 둔화되었다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예견될 수 있을까? 교회성장이 멈추어 버린 이 시점에서 20세기 후반기와 같은 부흥의 기적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 한국교회를 지탱해 왔던 뜨거운 신앙적 열정과 적극적인 신앙생활의 회복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여 진다.

본 연구자가 경천교회를 개척한 16여 년 전만 해도 가정교회로 시작해도 십자가만 걸면 부흥된다고 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고급인테리어를 해도 개척교회(상가 교회)는 부흥되지 않으며 가가호호 이사 전도를 하고 개인전도와 방문전도를 해도 성장하지 않는다. 10여년이 지나도 20여명 안팎으로 예배드리는 개척교회가 허다하다. 교회의 상당수가 3년 안에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또 다른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상당수의 목회자가 40, 50대 초반에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질병으로 쓰러지는 일도 많이 있으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의 개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개척되어야 한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며 주님의 명령은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듯이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교회는 더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더 절실히 계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1970년대에서 80년대를 거치면서 고속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성장이 정체된 채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찌면 이런 결과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

1) 통계청, 2005년 인구 및 주택조사 보고서 (서울: 통계청, 2005).

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교회, 예배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복음의 최고의 가치인 사랑의 이중계명을 바로 실천하지 못하고, 새 신자 전도보다는 교인 수평이동을 통해 성장을 원했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한국교회가 직면한 오늘의 상황에서 추구해야 할 길은 건강한 교회성장이다. 그동안 외형적 교회성장애 중점을 둔 결과 많은 부작용이 배태되었고 그 결과는 교회성장의 둔화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영혼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는 건강한 교회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영혼구원을 위하여 진력할 때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민족복음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천교회의 개척과 성장 과정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현실적인 목회전략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개척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한국교회 성장 둔화의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내어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건강한 교회 개척방안을 세우는 것이다.

둘째는, 경천교회의 개척과 성장과정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해서 개척교회에 필요한 목회전략과 개척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남양주시에서의 건강한 교회 개척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첫째로 교회개척과 성장 전략을 문헌 연구 방법으로 연구하려고 한다. 둘째는 경천교회의 개척과 성장과정을 분석하고 시행착오와 문제점들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틀을 제시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남양주시라는 제한된 지역에서의 교회개척과 성장에 대한 연구이며 경천교회를 중심

으로 교회 개척 및 성장에 관한 전략들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려고 한다.

본 논문은 총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를 연구하여 공동체적인 교회를 성찰함과 동시에 건강한 교회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할 것이다.

3장에서는 교회개척의 성경적 정의를 살펴봄으로서 교회 개척의 이론적 근거를 정립하고 개척의 정의와 유형과 전통적 교회, 교회의 존재이유와 회복되어야 할 새로운 교회론에 대하여 연구할 것이다.

4장에서는 남양주시에 관한 배경 및 특성과 지역적 탐구와 지리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을 통하여 연구하며 교회를 세우는데 있어서 남양주시를 선정한 이유를 제시할 것이다.

5장에서는 경천교회의 개척 과정과 성장 방안에 관한 실제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교회개척의 실제적인 준비와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에 맞는 목회 패러다임과 핵심전략 및 실제적인 복음전파 사역 그리고 경천교회의 미래 목회 사역을 제시할 것이다.

6장은 결론으로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몇 가지 제언과 함께 연구를 맺을 것이다.

제 2 장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해

본 장에서는 건강한 교회 개척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회란 무엇이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선포되어지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

제 1 절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며, 선교로 인한 현존하게 된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근본적인 소명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다.²⁾ 본 절에서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교회의 정의와 교회의 특성 및 교회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 교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것이다.

1. 교회의 정의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많은 정의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 개척의 방향을 설정하려면 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회의 정의를 신학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새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 전체라고 잠정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것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교회가 본질상 보편적인 한, 그것은 모든 신자 공동체로 표현되며 그러한 신자 공동체는 질적인 면에서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하등의 차

2) Howard Snyder, *교회 DNA*, 최형근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3), 68.

이가 없다.³⁾

교회에 해당하는 구약성경의 용어는 ‘카할(קהל)’과 ‘에다(עד)’가 있다. ‘카할’이란 말의 뜻은 ‘모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주로 시정(市政)이나 군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모일 때(창 49:6, 민 22:4) 사용되었던 말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말이 가장 의미있게 쓰여졌던 곳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신 4:10, 9:10, 18:16)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과 십계명의 계약을 받던 그들의 모임에서였다. 이 단어는 후에 ‘70인역’에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εκκλησια)라는 말로 옮겨졌다. 에다(עד)는 흩어진 상태 속에 있던 부리들을 가리킨 말로서 헬라어로는 시나고개(συναγωγή)로 번역되었다. 이 말은 신약에서 유대교 회중들(Jewish Congregation)을 가리킨 말로 고정되기도 했다.⁴⁾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에 관한 연구를 해오고 있는 김현진도 그의 책 *공동체 신학*에서 카할(קהל)과 에다(עד)를 구분하면서, ‘부르다’를 의미하는 어근을 가진 ‘카할’은 어떤 집회의 소집 및 ‘모이는 행위’와 관련된 용어라 한다. 즉, 이것은 모임의 구성원들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오히려 모이는 행위의 발생을 가리킨다. 그래서 카할은 ‘모임’으로 번역한다. 에다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모임(ceremonial community)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⁵⁾

신약에서는 70인역에서 유래된 에클레시아와 시나고개가 사용되었다. 에클레시아(εκκλησια)는 에크(εκ)와 칼레오(καλεω)의 합성어로 ‘불러내다’를 뜻한다.⁶⁾ 고전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의 용례는 폴리스(polis)의 시민들의 회집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일반 대중으로부터 불러내다(εκκαλεω)’라는 헬라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볼 때 신약적 교회의 의미로서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⁷⁾

한편 시나고개(συναγωγή)라는 말은 ‘모으다’라는 뜻의 단어이다. 복음서나 바울서신에 있어서 시나고개는 자주 나타나지만 에클레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모임을, 시나고개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모임과 장소를 의미하게 되었다.⁸⁾

3) Millard J. Erickson, *교회론*, 이은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32.

4)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86), 19-20.

5)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2), 23.

6) 김송식, *교회 개척전략* (서울: 로고스 2008), 26.

7) 김현진, *공동체 신학*, 24.

8) 김송식, *교회 개척전략*, 26.

에드먼드 클라우니(Edmund P. Clowney)는 예수가 ‘교회’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은 거의 구약적인 의미로 사용했다고 말한다. 즉,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아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신약의 성도들은 자신들을 옛 이스라엘을 계승하는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식 하였으며, 그들의 회집을 구약의 시내산 총회(Assembly)를 계승하는 종말론적 공동체로 인식한 것이다.⁹⁾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의 모임을 교회라고 할 수 있다. 파이프(Pieper)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성령이 그들 속에 일으키는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말하고 있다. 뮐러(Mueller)는 ‘성령이 복음을 통하여 모으시는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했다. 결국 교회는 육체를 지닌 인격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루어진 예배 공동체이다. 새 생명의 공동체는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인격적 공동체이다. 교회는 장소와 지역을 지닌 구체적인 모임이며, 동시에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세상에서 주님과 그의 구원을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는 보편적 교회와의 일체성 속에 있다. 즉, 교회는 건물을 지칭함이 아니라 불러내심을 받은 부리로서의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여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무리들이다.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즉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신자들(엡 1:22; 3:10; 골 1:18)을 말한다.¹⁰⁾

2. 교회의 특성

교회의 고전적 특성은 터케아 공의회 4가지 기준인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라고 선언한다. 이 고전적 특성을 교회는 근본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¹¹⁾ 교회는 하나일 뿐 아니라 다양하다. 교회는 다양하며 각지가색이다. 초대 기독교 회중들(예를 들면,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의 다양성을 살펴본다. 교회의 인종적, 사회 경제적, 계층적 다양성(예를 들면, 고전 12:13; 갈 3:23-29; 골 3:11)을 경축하는 성경 구절을 본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일치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이러한 일치를 부가사의 한 것이 되게 하는 다양성을 불

9) Edmund P. Clowney, *교회*, 황영철 역 (서울: IVP, 1998), 31.

10) 김송식, *교회 개척전략*, 27.

11) Snyder, *교회 DNA*, 16.

수 있는데, 놀라운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하나됨은 초대교회의 가장 경이로운 특성 가운데 하나다.

둘째, 교회는 기록할 뿐 아니라 은사적이다. 교회를 기록하게 하시는 동일한 성령이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고전 12장; 엡 4:7-16; 히 2:4). 은사를 주시는 분은 기록한 영어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인격과 카리스마 둘 다를 구현하면서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통해 최상의 기능을 발휘한다.¹²⁾

조직 신학자 한스 쿡(Hans Küng)은 기록성은 기록하신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는 기록해야만 한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죄 많은 동시에 기록하고, 기록한 동시에 죄 많은 공동체 즉 죄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죄 은총에 의하여 성인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¹³⁾

셋째, 교회는 지역적이면서 보편적이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저 세상에서) 전 세계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고 특별한 자기 취향과 방식과 문화를 갖고 있는 매우 다양하고도 특정한 지역 공동체로 동시에 존재한다. 교회는 문화를 초월하면서도 자신을 특정 문화에 담그며 살아간다. 동시에 보편적이다. ‘교회’라는 단어에 대한 신약 성경의 용법은 이러한 성격을 보여준다(마 16:18; 18:17; 행 8:1; 9:31; 11:22-26; 13:1; 15:22; 20:17; 고전 12:28; 엡 1:22; 3:10; 5:29-32; 계 2-3장). 적어도 신약 성경은 교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만큼 교회의 지역적 특성을 강조한다.¹⁴⁾ 보편성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수준이나 피부 색깔이나 성별, 문화적 배경, 속한 국가 때문에 서로를 배타하거나 반목질시하지 않는다.¹⁵⁾

넷째, 교회는 사도적인 만큼 참으로 예언자적이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엡 2:20; 또한 엡 3:4-5; 계 18:20). 예수님은 사도이신 동시에 예언자로서 교회를 세우신다(눅 1:76; 13:33; 24:19; 히 3:1). ‘사도와 예언자’라는 성경의 짝은 이 둘이 함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부가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교회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곧 예수님이 시작한 일을 계속하도록 보냄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교회는 사도

12) Snyder, *교회 DNA*, 27-28.

13) 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철곡: 분도출판사, 2012), 140.

14) Snyder, *교회 DNA*, 28.

15)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74.

적이다(요 14:12; 20:21).¹⁶⁾

최근에는 속성을 확대시켜 나가는 경향이 있으며 찰스 벤 엔젠(Charles Van Engen)과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Snyder)를 꼽을 수 있다. 찰스 벤 엔젠은 교회의 네 가지 속성에 대해 은사와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은사로 받은 교회의 유일성은 하나로 연합하는 일을 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고, 주님과 연합하게 한다. 은사로 받은 교회의 본질인 성결성은 성도들이 조직 안에서 세상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데 있어서 기록하게 하려는 일을 하게 한다. 은사로 받은 교회의 보편성은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영적, 숫자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모든 만물에게 말씀하시는 만군의 주님 주위에 모두가 모여들도록 한다. 은사인 교회의 사도성은 사도적인 복음을 적용하고, 사도처럼 살게 하고, 세상을 향해 사도로 보냄을 받는 일을 하게 한다.¹⁷⁾

하워드 스나이더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을 말하면서 누가복음 4장 16-21절의 구절을 제시한다. 참으로 사도적인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들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향한 복음 전파는 사도적인 특성과 애인자적인 특성을 하나로 결합하고 한데 묶어 주기 때문에 강력하다. 이것은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인격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육신의 치유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적과 기사' 가운데 최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¹⁸⁾

또한 하워드 스나이더는 교회의 은사적 본질과 만인 제사장 교리를 말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사를 부여 받았다. 각 신자는 세상에서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이다. 각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구분과 협력하거나 동역한다.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기독교 리더십은 은사적이며(영적 은사들에 근거하여; 엡4:7-16), 성령의 열매와 예수님의 '마음'에서 드러난 것처럼, 인격에 뿌리를 두고 있다. 리더십의 은사들은 다양하나, 한 가지 근본적인 원

16) Snyder, *교회 DNA*, 29.

17) Charles Van Enge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 1995), 86-87.

18) Snyder, *교회 DNA*, 31.

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것은 교회의 사도적 선교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고전 12:1-28; 엡 4:11-12)라고 했다.¹⁹⁾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일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냄 받은 사명을 완수함으로 세상 안에서 승리하는 세상 속의 공동체이다. 동시에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소명 받은 공동체이다.²⁰⁾

조직신학자인 권문상은 ‘교회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몸에서 발견된다’고 하면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이해함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를 머리로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종과 계급,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한 ‘한 형제’임을 의식하게 되고 깊은 형제애를 느끼게 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의 공동체 의식이 발현될 수 있다고 말한다.²¹⁾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이며, 교회는 공동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3. 교회의 본질

구원받은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들이 실로 많다. 미국의 새들백 교회 담임목사인 릭 워렌(Rick Warren)은 교회를 위한 다섯 가지 목적을 첫째,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한다. 둘째, 우리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교회’로 끌어들이는다. 넷째, 우리는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한다. 다섯째, 우리는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새들백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의 가족에 소속하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에 이르도록 개발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사역하고,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준비시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한다고 하면서 찬미, 선교, 소속, 성숙, 사역을 교회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²²⁾

교회는 부여된 사명을 이행할 때 그 존재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는 데 조금도 의

19) Snyder, *교회 DNA*, 135-136

20)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75.

21) 권문상, *공동체로서의 교회* (강의안;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3), 136.

22) Rick Warren, *목적이 이끄는 교회*,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도서출판 디보태, 1996), 125.

문의 여지가 없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예배의 완전성을 위하여 부과되어진 공동체로서의 섬김과 선포와 선교의 사명이 그 필요성을 더하게 한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영역안으로 들어온 구원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복음 즉 구원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채 그리스도로부터 단절된 세상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재결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중생되게 하는데 교회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²³⁾

예배학 교수인 최승근은 교회의 근본적인 본질의 핵심은 가시적인 제도가 아니라 형제 자매됨이다. 즉, 사람들간의 순수한 교제이다. 교회는 사랑에서 비롯되는 완전한 자기 헌신에 의해 이루어진다. 나와 너 사이의 관계는 본질에 있어 더 이상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배푸는 관계이다. 다시말해, 교회는 제도 또는 가시적으로 먼저 조직된 사회가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인간들의 교제로서, 일차적으로는 내적이다. 그리고 신조, 예배, 교회적인 친교라는 외적인 끈들로 표현되는 것이다.²⁴⁾

교회의 본질은 언제나 역사적 형태 안에서 보아야 하고, 역사적 형태는 언제나 본질을 출발점과 목표로 해서 이해해야 한다.²⁵⁾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무리로서 역사적, 현실적 공동체로서의 모임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서 삼위 하나님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영적 유기적 공동체이다.

가.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모임을 말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인 왕 같은 제사장이요 백하신 족속의 모임이다. 하나님의 백하심을 받은 무리들의 기원은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되어 진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창 12:1-2).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그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곧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23) Millard J. Erickson, *교회론*, 21.

24) 최승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예배* (강의안: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3), 491.

25) 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19.

으로 부르셨다.²⁶⁾

칼 바르트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와 교회 헌장 'Lumen Gentium'(세상의 빛)은 교회의 구원사적인 차원에 역점을 두어, '하나님의 백성' 개념을 구원사의 관점과 결합하였다. 즉, 교회에 관한 진술은 여기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무시간적 정의론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행동의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영원한 아버지의 시간 이전의 결의(決意)로부터 출발한다고 했다.²⁷⁾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적 개념 역시 “하나님의 백성”(λαοῦ θεοῦ, 히 4:9, 11:25; 뱀전 2:10) 혹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λαοὶ περι ποιησιν, 뱀전 2:9)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한 민족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행위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회의 정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초월하여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롬 9:24-26).²⁸⁾

나.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은 성서적 표현이다. 성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한다(골 1:18, 롬 12:5, 엡 1:22-23).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를 말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교회의 일체성을 언급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이다.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각기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며, 지체로서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에 연결되고 지체끼리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교회가 된다.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고, 우리는 지체로서 연결되어지는 유기체적인 몸이며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는 우주적인 것이며 이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골 3:11).²⁹⁾

26) 김송식, *교회 개척전략*, 28.

27) 이신진, *칼 바르트의 교회론*, (서울: 한들출판사, 2000), 235.

28) 김현진, *공동체 신학*, 30-31.

밀라드 에릭슨(Millard J. Erickson)은 가장 확대된 교회상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상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 동안에는 인간의 육체 안에서 활동하신 것과 같이, 교회는 현재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는 장소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보편적 교회는 물론 개별적인 지역 모임들에 관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상은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합(connection)을 강조한다. 신자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다.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며(골 1:18), 신자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골 1:16). 그와 연합된 신자들은, 머리이신 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가게 된다(골 2:19).³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그의 사역의 연장(extension)이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신 후(마 28:18), 제자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면서 자신이 세상 끝 날까지 그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다(19-20). 그러므로 만일 언젠가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수된다면, 그것은 그의 몸인 교회에 의해서 완수될 것이다.³¹⁾

김현진 역시 교회를 설명해 주는 두 번째 개념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재를 거쳐 미래를 지향하는 교회의 시간적 차원을 나타낸다면, 이에 비하여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안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와의 공간성을 나타낸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독교적 해석이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한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중심의 본질성과 그리스도와 성도의 불가분의 연합성을 가르치는 것이다.³²⁾

한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통일된 하나의 몸’을 의미한다.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은 사회적인 파벌이나 당파가 형성되었고 그들이 교회에 모일 때 그것이 역력하게 나타났다(고전 11:17-19).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

29) 김송식, *교회 개척전략*, 28-29.

30) Erickson, *교회론*, 36-37.

31) Ibid., 40.

32) 김현진, *공동체 신학*, 33.

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엡 4:4-6).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을 이루고 있다.³³⁾

다. 그리스도의 신부

성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이 비유는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비유하였다.

이름 너를 지으신 자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이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사 54:5-6).

이런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신약에서도 볼 수 있다. 에베소서 5장 22-23절에서는 교회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 결혼을 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신부로서의 교회 공동체는 신랑이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³⁴⁾

라. 성령의 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렀다(고전 3:16).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바울은 신자들을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 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으로 말한다. 여기서 이 명칭은 미래의 이상적인 교회 곧 보편교회에 적용될 수 있지만, 현재의 역사적 교회 모습이 구체적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다는 사실에는 이의가 없다.³⁵⁾

빌라도 에릭슨은 교회를 처음 존재케 하신 분은 바로 성령이시라고 말한다. 성령

33) 김현진, *공동체 신학*, 35-36.

34) 김송식, *교회 개척전략*, 30.

35) Ibid., 30-31.

께서 행하신 극적인 이 사건은 오순절에 일어났는데, 그 때 그는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시고, 삼천 명을 회개시키셔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 이후 그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전 12:13). 지금 성령께서는 교회에 내주(內住)하고 계신데, 신자 한사람 한사람안에 개별적으로 내주하실 뿐 아니라 신자들의 모임 안에 공동으로 내주해 계신다.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교회에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룬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야언, 충성, 온유, 절제(갈 5:22-23). 교회에 그러한 특질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성령께서 교회안에 활동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할 수 있다.³⁶⁾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거하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모든 가르침들을 생각나게 하였고(요 14:26), 그들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다(요 16:13). 성령께서는 교회를 기록하고 순결하게 만드신다. 그 이유는 옛 언약 아래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기록하고 신성한 장소였던 것과 똑같이, 새 언약 아래서는 신자들이 성령의 전이므로 그들이 기록해졌기 때문이다(고전 6:19-20).³⁷⁾

바울은 신자들의 '주 안에서 성전'이며, '성령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말한다(엡 2:21-22).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므로 성령의 교통으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다. 성령은 교회를 '은사공동체(charismatic community)'가 되게 하신다. 즉, 교회는 은사 공동체이다. 은사 공동체로서 교회의 의미는 '다양성'이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조직체(organization)가 아니라 유기체(organism)이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지체들의 제 기능이 잘 발휘되는 것을 말한다. 이 지체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이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 교회의 목표는 '하나 됨(oneness)'이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성과 함께 일치의 역사이다. 바울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3)고 말한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연합된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코이노니아 사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 일반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쌍방적인 관계이지만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는 성령과 함께 하르

36) Erickson, *교회론*, 41

37) Ibid., 43-44.

로 삼중적인 관계이다. 성령의 하나 되시게 하는 사역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계속 유지하는 사역이다(엡 3:4-5).³⁸⁾

제 2 절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

앞 절에서는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본 절에서는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건강한 교회에 대하여 다음의 네 가지, 예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제자를 만드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나누어서 그려볼 것이다.

1. 예배하는 교회

교회의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분의 선교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교회가 일차적인 열정을 두는 대상은 하나님이다. 곧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에서 기꺼이 예수님의 행동 양식을 따르며 그분의 몸이 되고자 하여 예수님 주변으로 모인 공동체다. 참된 예배는 선교를 이끌어 낸다. 선교를 이끌어 내지 않는 예배는 목적과 열정이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열정으로 이어진다.³⁹⁾

가. 예배의 정의

‘worship’(예배)은 고대영어의 ‘*weorthscipe*’에서 온 말이다. 이 단어는 ‘*weorth*’(worthy: 가치 있는, 존경할만한) ‘*scipe*’(ship:선분)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따라서 ‘worship’은 ‘가치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 가치와 존경을 돌린다’는 의미를 가진다.⁴⁰⁾

또한 ‘worship’이란 말이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가치와 존중을 의미하는 말이며, 1549년 이래 성공회 결혼 예배는 ‘나는 나의 몸으로 그대를 섬기겠노라’(With my

38) 김현진, *공동체 신학*, 38-41.

39) Snyder, *교회 DNA*, 132.

40) 최승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예배*, 1.

boby I worship thee)라고 하는 놀라운 서약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그 의미는 자신의 몸으로 상대방에게 존경하거나 존중하거나,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다. 영어의 ‘존경하다, 숭배하다’(revere), ‘받들어 모시다’(venerate), ‘숭배하다 찬미하다’(adore)라는 말들은 원래 ‘두려워하다’(fear), ‘사랑하다’(love), ‘기도하다’(pray)를 의미했던 라틴어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⁴¹⁾

구약 성경에서 예배는 아바드(עבד)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으며 그 의미는‘봉사’ 또는 ‘섬김’이다. 예배를 ‘service’로 표현하는 경우 그 유래를 아바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어휘는 쇠하아(שחא)라는 단어이다. 이 말의 뜻은 ‘굴복한다’또는 ‘자신을 앞드리는 것’으로써 숭배, 순종, 봉사의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개념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마음과 몸을 가지고 최대한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표현은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라든가 ‘앞드려 경배했다’라고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사용한 것과 관련된다(창 24:26, 출 4:31; 34:8). 곧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주성을 버리고 그의 뜻을 따르며 섬겨야 할 존재라는 사실과, 경배와 복종의 생활이 예배자들의 주요한 삶의 근본이 되어졌다는 사실이다.⁴²⁾

신약성경에 사용된 프로스퀴네오(προσκυνεω)는 절하다 또는 굽어 엎드리다, 입맞추다라는 뜻으로서 지상의 통치자들에게 신체적으로 굴복 또는 순종한다는 의미를 지닌 말이다. 그리고 라트레이아(λατρεα)와 레이투르기아(λεθουργια)가 있다. 라트레이아는 ‘다만 그분만을 섬기라’고 유혹하는 사탄에게 최종적으로 선언할 때 사용된 말이며, 레이투르기아는 예전의 의식(ritual)과 관계를 맺는 단어이다. 본래의 뜻은 ‘백성을 위하여 일한다’라는 뜻으로 소국가였던 아테네를 위하여 수행되어졌던 일반적인 임무에 사용된 단어이다.

예배학자인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는 그의 책,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설교*에서 예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최고조에 다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행위를 축하(celebration)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예배는 과거에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을 축하하며 미래에 발생할

41) James F. White, *기독교예배학* 입문, 정장복, 조기연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3), 34.

42) 정장복, *예배학 개론*, 7-8.

종말론적인 사건을 예상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온 세상 전체 역사의 궁극적 의미가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⁴³⁾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온 세상 전체 역사의 궁극적 의미가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서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조에 달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축하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인가?

이 진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기독교 예배의 진정한 정신은 말씀과 성만찬, 찬양을 드리고, 떡과 잔을 함께 들며, 하나님께 기억된바 되는 은혜의 웹(web)이다. 특별히 성만찬을 통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모든 인간의 열정을 변형시킨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삶의 패턴 가운데서 보신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를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감성의 차원으로 이끌어가며 복음의 핵심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끌어간다.⁴⁴⁾ 성경적이고 의미 있는 예배를 원한다면 복음의 핵심을 알고 예배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장복은 예배의 본질을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말한다.

첫째, 기독교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모든 예배자들이 마음속에 확신해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라고 한다. 둘째, 모든 기독교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로 계속되어야 한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수난의 역사적 사건(historical event)을 통하여 헐어 버렸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스스로 복된 소식이 되셨음을 믿고, 그의 수난과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보여 주신 구원을 확증하며, 하나님을 우리리보고 그에게 경외와 감격과 찬양을 돌릴 때만이 예배로서의 가치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예배 가운데 최대의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예배의 형태와 내용과 메시지가 성경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자신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주신다’고 강조하면서, 기독교의 전체적 규범이 성경 외에서는 발견될 수 없음을 역설한 바 있다. 그는 그 이유로 ‘성경 그 자체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성

43) Robert E. Webber,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설교*, 이승진 역, (서울: CLC, 2012), 30-31

44) Don E. Saliers, *기록한 예배*, 김윤용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0), 68-69

경이 없이는 탈신할 수밖에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⁴⁵⁾

예배는 겸손함과 기쁨이다. 예배는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께 몰두하는 것이다. 예배는 자신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찬양하는 것이다. 진정한 예배는 겉치레가 아니며 소란한 난장판도 아니다. 진정한 예배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드러지지 않으며, 계속해서 시계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며, 옆 자리에 앉은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열려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⁴⁶⁾

로버트 레이번(Robert G. Rayburn)은 그의 책 *예배학*에서 기독교 예배란 '신자의 세 생명의 활동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나타난 신격(Godhead)의 충만과 그의 강력한 구속의 행위를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에게 합당한 영광, 존귀, 순종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드리기를 노력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⁴⁷⁾

나. 예배의 대상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응답이며 구체적인 행위이다.⁴⁸⁾ 예배는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의도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기도와 찬미와 감사에 대해 경고한 바울의 말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이다.⁴⁹⁾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사명이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요 4:23-24)는 말씀과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의 명령은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 쌓을 것을 명령하고 있다. 교회가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거기에서 주어진 말

45) 정장복, *예배학 개론*, 117-118.

46) N. T. Wright, *예배를 말하다*, 최현만 역 (서울: 에클레시아북스, 2012), 21.

47) Robert G. Rayburn, *예배학*, 김생달 강귀봉 공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2), 27.

48) 총회헌법개정위원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5), 246.

49) Erickson, *교회론*, 71.

숨 속에서 영과 육이 양육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의미가 계속 되는 것이다.⁵⁰⁾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다. 예배에서 인간이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만 드러나야 한다. 예배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요 4:23)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씀에는 예배가 지니는 깊이와 더불어 다양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예배는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께 몰두하는 것이다. 자신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찬양하는 것이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열려 있고, 하나님을 정의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⁵¹⁾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예배는 출석 숫자가 많은 예배가 아닌, 영감 있고 하나님의 임제가 있는 예배로 드러져야 한다.

2.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서는 선교사이시다. 그분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은 바로 선교 사역인 것이다. 파송한다는 말에 해당하는 라틴어는 미시오(*missio*)다. 자신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sent*) 혹은 파견하셨다(*missioned*).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유사하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선교 사역을 잘 수행하도록 힘주시기 위해 성신의 선물을 주셨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불가피하게 그리스도의 선교사인 것이다.⁵²⁾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아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성도의 모임이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러므로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각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명하셨을 뿐만 아니라(눅 9:1-6), 부활 후에도 천하의 모든 족속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마 28:19; 행 1:8).

50) 정장복, *예배학 개론*, 23.

51) Wright, *예배를 말하다*, 21.

52) David Watson, *교회의 진정한 표상*, 오광만 옮김 (서울: 여수문, 1991), 425.

한스 쾅은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회가 교회 아닌 세계 속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말거나, 세계는 항상 교회 곁에 있다. 혹은 동조하고 혹은 배척하면서, 혹은 침묵하고 혹은 발인하면서, 혹은 항의하고 혹은 감사하면서, 항상 곁에 있다. 이 사실 앞에 교회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교회는 세상 앞에서 증언을 하지 않고서는 달리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⁵³⁾

찰스 벤 엔겐은 교회의 선교를 교회의 참된 목적과 연관지어서 생각한다. 교회의 참된 목적은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생명을 주시는 성령,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선교에서 찾아야 한다.⁵⁴⁾ 벤 엔겐은 교회의 존재목적은 주님의 증인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모든 문화와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벤 엔겐은 선교와 증거의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선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몸 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사실들은, 사랑의 사귀,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 섬기는 봉사 사역들을 통해서 증거 된다. 하나님의 선교하는 백성들은 화목하게 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나뉜 세상 안에서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거 한다.⁵⁵⁾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공동체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고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표지이면서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교회는 성별, 사회적 신분별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 한 공동체, 곧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⁵⁶⁾

빌라드 에릭슨은 ‘교회는 세상에 전해줄 기쁜 소식, 즉 소망을 가져다주는 소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교회의 메시지와 사역은 독특한 것이다. 오늘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의 소망이 없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시대나 소망이 결핍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한다.⁵⁷⁾ 이 복음은 모든 인종적, 사회적, 경제적,

53)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203.

54) Van Enge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15.

55) Ibid., 131-133.

56) 권문상, *부흥 어깨인* (성남: 브니엘, 2006), 221.

교육적 장벽들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롬 1:16; 갈 3:28), 시간의 장벽까지도 초월한다. 결코 쇠퇴하지 않는 메시지(유 3절),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 맡겨진 신성한 사명이다. 교회는 무오하고 영구적인 자원 구원의 유일한 수단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⁵⁸⁾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하며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해야만 한다. 성경적인 전도는 인간이 죄인이며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제물로 죽으셨음을 전하고 구주로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신다(행 1:8).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다.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은 첫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고, 둘째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으며, 셋째, 교회의 최대 사명이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절대적인 사명인 전도는 세상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⁵⁹⁾

전도의 목적은 첫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고 말씀하셨다. 또한 누가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는 것을 보고 원망하자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성장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다. 전도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여야 한다.

셋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다. 바울도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57) Erickson, *교회론*, 86.

58) Watson, *교회의 진정한 표상*, 85.

59) 김상현, *전도중심교회* (서울: 도서출판 프리셋트, 2007), 89.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이다 아멘”이라고 하였다. 복음이 선포되고, 죄인이 회개하여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진도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마음으로 때를 잊든지 못 잊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파해야 한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하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는 말씀처럼 복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왕국을 완성하는 날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교회가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전도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도록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을 향한 첫 마디가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이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다. 제자도의 진실성을 알게 하는 시금석은 그 교회가 복음전도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과 열정이다.⁶¹⁾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함이었다(막 1:14-15). 예수님의 몸 된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기관이며,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결국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이며 이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최고 핵심 가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⁶²⁾ 교회는 단지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

60) 김종포, *대형교회 숲 사이의 아름다운 교회*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93-95.

61) David Shenk, Albin Stutzman, *초대교회의 모델을 따라 개척하라*, 최동규 역 (서울: 배다니출판사, 2004), 300-301.

62) Hendrik Kraemer, *평신도 신학*, 유동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140.

기 위해 세상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그 본질상 선교적이며 사도적이다. 교회는 선교이다.⁶³⁾

3. 제자를 만드는 교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다.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의 선교 활동을 계속할 그의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되었고 그들 속에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 사역이 계속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파되어야 했다. 이런 의미에서 열두 명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사도들이었다(눅 6:13). 특히 다른 사람에게는 공적으로 숨기시던 그의 메시아직을 제자들에게는 드러내시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에 만족하시면서 그 고백 위에 그의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하셨다(마 16:16-20). 승천하시기전 제자들에게 아직 미숙함과 불신의 찌꺼기가 남아 있는 것을 보시면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0)고 선언하시는 가장 권위 있는 파송을 단행하셨다.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자기의 교훈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대사명을 당부하셨다(마 28:18-20).⁶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제자훈련이다. 제자훈련을 통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주님의 전략이시다. 이 제자 훈련은 첫째는 사람을 세우는 핵심이 되며, 둘째는 지역 사회를 향한 전도전략이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전략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남양주시 지역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경천교회의 전도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가. 제자의 개념

신약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이 나오는 곳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뿐이다. 대략 250여 회 가량 사용되고 있다. 마태는 두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부 열두 명의 제자들에게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마태는 모든 신자들이 교역자나 평신도를 막론하고, 항상 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제자의 용어를 광의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데 혁신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

63) Kraemer, *평신도 신학*, 145.

64)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126-128.

가였다. 특히 그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주지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들어온 신자들을 묘사하는 데 제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⁶⁵⁾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다. 제자는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준다. ‘제자 삼다’라는 동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자화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하며, 그가 다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⁶⁶⁾

또한 제자로 부름 받은 사람은 계속 자라가야 하고 성숙해져야 한다. 교회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신자를 제자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마 28:19)에서 볼 수 있듯이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은 주님의 명령이고, 누구든지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이다.

나. 제자훈련의 정의

제자도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계획이다. 절망과 파괴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 현 세계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참된 제자로의 길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없이 몰락해 가는 세상을 교회가 회복시킬 것을 원하시며, 모든 창조물을 교회가 치유할 것을 원하신다.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계획을 위해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한다. 제자도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⁶⁷⁾

제자도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다. 제자도는 한정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자도는 초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신자들, 그들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 제자도다. 제자도는 교회가 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교회가 행하

65)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129-130.

66) Dabid Watson, *제자도*,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13), 84.

67) Ibid., 13-14.

는 모든 것이 바로 제자도다. 제자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시키는 요소에 그치지 않는다. 진지한 제자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이는 가장 중요한 증거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마 28:18-20)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⁶⁸⁾

사람들이 올곧은 제자의 삶을 묘사하는 말로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제자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폭넓은 체험을 묘사하는 말이기도 하다. 제자도라는 말은 순수한 성경적 표현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제자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인다. ‘제자’뒤에 붙은 ‘도’라는 말은 ‘-의 모습’ 또는 ‘-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제자가 제자로서 갖는 모습을 뜻한다. 사실, ‘제자도’라는 말은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는 느낌, 곧 여정을 떠나는 느낌이 강하다. 이는 곧 이미 제자가 되었다기보다 제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담긴 것이다.⁶⁹⁾

제자도가 새로운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성경적인 해답으로서 교회의 체질을 바꾸고 그 이미지를 갱신할 수 있는 중요한 목회 전략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하면 평신도를 제자도에 입각한 예수의 제자로 만들 수 있을까이다. 제자훈련은 이 질문에 대답하는 실제적인 목회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⁷⁰⁾ 진정한 제자훈련은 평신도가 날마다 사회 속에서 성(聖)과 속(俗)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다.⁷¹⁾

예수님의 제자도의 독특한 개념은 열두 제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그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관계된 것이다. 열두 제자와 예수님과의 특별하고 독특한 관계가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자도 역시 오직 열두 제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라고 발뺠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삶을 전적으로 바쳐야 하며, 이 땅 위에서 그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에게 삶을 바쳐야 할 것이다.⁷²⁾

68) Hull, Bill, *온전한 제자도*, 박규테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18-19.

69) Ibid., 33.

70)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184.

71) Ibid., 188.

72) Ibid., 34.

따라서 제자훈련은 구원의 사명이며 제자도는 그리스도에게 삶을 전적으로 바치며 그리스도의 계획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다. 제자훈련의 목적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신자의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데 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제자는 예수의 제자다. 바울의 제자도 아니며 담임 목사의 제자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훈련의 주제며 표준이며 목표이다. 제자훈련에서 예수님을 빼 버리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각자의 왕,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따르며 배우며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무엇보다 사람을 바꾸어 놓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말씀과 성령의 감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답후 3:17).⁷³⁾

제자훈련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소명자로 만드는 작업이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셨다. 이 일을 위해 자기 삶을 철저하게 진리의 증거자, 사랑의종으로 헌신하셨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은 평신도를 복음의 전파자로, 진리의 교사로, 사랑의 치료자로 헌신하게 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비전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사는 환경이 어떠한 간에 버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소명자로 만드는 것이 제자훈련이다.⁷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다. 제자는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제자 삼다'라는 동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론으로 제자화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하며, 그가 다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⁷⁵⁾

73)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191-192.

74) Ibid., 193.

제자훈련은 평신도를 제자로 삼는 것이다.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은 주님의 명령이고, 누구든지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이다. 평신도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자라게 하고(히 6:2) 인격이 성숙하도록 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세워 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제자훈련은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4. 이웃을 섬기는 교회

예수의 근본 관심사는 “남을 위한 존재”에 있다(마 20:26-28). 그리고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다른 비슷한 말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그야말로 온전히 자기 인격을 다 바쳐 타인을 지향하는 봉사를 표현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예수의 제자란 남을 섬김으로써 이루어지는 인간이다. 공관복음서에도 봉사라는 새로운 표현을 선택하고 강조했다. 봉사에 관한 예수의 말씀이 여섯 번이나 나온다. 바로 이 봉사라는 말이 제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것임에 틀림없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성립 요건은 권리, 권력, 학식, 위임이 아니라 봉사이다. 요한의 해석에 의해서도 요청하는 바다. “제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제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보전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르시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영예롭게 하실 것입니다(요 12:25-26).⁷⁵⁾

예수님은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막10:45)고 말씀하셨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 분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셨다. 그 분은 몸을 낮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그 분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육체적 필요를 친절히 돌보는 데 매우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 그 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로마의 십자가형을 당하심으로 마침내 섬김의 도를 완성하셨다.⁷⁶⁾ 예수님이 보여 주신 섬김의 도는 하나

75) Watson, *제자도*, 84.

76)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163-164.

77) Ronald Sider,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다*, 김선일 역 (서울: 한국기도학생회출판부, 2012), 191.

님이 모든 인간을 위해 마련하신 인생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이다. 예수님이 참된 인간이라면, 섬김의 도는 영원한 기쁨으로 가는 길이다.⁷⁸⁾

한스 쾅은 교회는 결코 자기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남을 위한, 인류를 위한, 세계를 위한 존재인 것이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포교 사명을 띠고 있음을, 세계와 관련되어 있음을, 설교를 통하여 세계에 봉사해야 함을 자각한다.⁷⁹⁾

오늘날 교회성장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가 예수님이 보여 주신 겸손한 섬김의 자세를 회복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상은 더 이상 비난의 화살을 쏘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반사하는 빛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본 장에서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무엇보다 건강한 교회는 새로운 사명을 향해 결단하고 일어서는 교회이다.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고, 불의에 항거하며, 소외된 사람들과 연대하는 새로운 운동의 주역이 되는 교회야말로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이다. 교회는 항상 세상 한가운데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예배와 선교하는 교회, 제자를 훈련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 이러한 교회의 재안을 다시 바라보고 평가할 때, 오늘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본 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교회 개척에 대하여 나를 것이다.

78) Sider,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다*, 193.

79)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130.

제 3 장

교회 개척의 이론적 근거

앞 장에서는 건강한 교회의 개척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교회 개척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세우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교회 개척의 정의와 유형 및 교회 개척의 올바른 방향과 개척 교회 지역선정, 그리고 개척의 기초 멤버와 재정마련 등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제 1 절 교회 개척의 정의와 유형

1. 교회 개척의 정의

교회 개척이란 건강한 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연장의 하나로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도록 돕는 것이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선교활동의 결과이며, 복음 전파 운동을 통하여 교회를 확장시키는 신생교회의 설립을 뜻한다.⁸⁰⁾ 또한 교회 개척은 한 기존의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누기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루어진 새로운 회중을 형성하는 행위이다.⁸¹⁾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것이다.

초대 교회 시대에 세계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라는 성령의 명령을 좇아 순종한 결과였다.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어 권능을 받은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행 1:8), 교회를 이룬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80) 김송식, *교회 개척전략*, 31.

81) 명성훈, *교회개척의 원리와 방법* (서울: 국민일보사, 2001), 16.

나아가야만 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고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나아갔다. 그런 다음 그들이 전도한 사람들은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책임을 갖게 되었다. 그들의 전략안에는 모든 성장하는 것들은 스스로 재생산한다는 확신을 갖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개척한 각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개척했다.⁸²⁾

따라서 본 연구자는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건강한 모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연장의 하나로서 새로운 자교회가 세워지도록 돕고 함께 사역하는 것으로 본다. 자녀가 장성하면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기르듯 장성한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도록 돕는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교회 개척이란 무교회 지역이나 교회를 필요로 하는 곳에 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교회 개척이 한국교회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교회성장학자인 피터 왜그너는(C. Peter Wagner)는 교회성장과 교회 개척에 관한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교회 개척이 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지적한바 있다. 그는 성장하는 교회는 예외없이 교회 설립을 강조하는 교단이었다고 지적하고 하늘 아래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는 일이라고 단정 짓기도 하였다.⁸³⁾

교회 개척은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가시적인 무리 즉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련의 선교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개척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아름다운 신부와 같은 공동체로서 성령이 기하시는 유기적 공동체 또는 모임을 지향하는 시작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시작의 단계는 미약하지만 스스로 번식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 이 모든 역사는 성령의 능력이 중심이 되는데, 결국 전도 명령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다.⁸⁴⁾

교회 개척은 지역 복음화와 성도들의 신앙 양육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더 나

82) Towns, Elmer and Porter Douglas, *사도행전식 교회개척*, 김재권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37.

83) 목회와 신학 편집부, *교회개척*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10), 20.

84) 김송식, *교회 개척전략*, 32.

아가 인류를 위한 가장 긴급한 사업이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은 오직 교회의 설립(혹은 개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물론 모든 교회마다 죄와 실패는 있지만 사람들이 회개할 때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는 주님이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일단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현존을 재창조 한다.⁸⁵⁾

따라서 교회 개척은 사람이 주관하여 진행하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인간의 헌신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때 효과적인 교회 개척이 가능해진다. 의미있는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자 조직체이다. 교회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 그러나 죄악이 관영하고 해로운 행동들을 용납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된다.⁸⁶⁾

그러므로 교회 개척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일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과정이며 진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므로 확신을 가지고 세워가야 한다. 교회 개척은 예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므로 교회 개척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교회를 스스로 완성해 가는 계획과 과정에서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대리인이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포를 성취하고, 그 분이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구원해가는 한 방법으로 사역하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지상명령을 주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분이 교회를 세우지만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전도라는 구체적인 사역 명령을 주셨다. 결국 교회 개척은 주님의 전도 지상명령에 효과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방편 가운데 하나이다.⁸⁷⁾

교회는 인간의 계획이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다. 그러므로 개척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85) Shenk, Stutzman, *초대교회의 모델을 따라 개척하라*, 27.

86) George Barna, *21세기 교회를 붙잡아라*, 탁영철 역 (서울: 배다니, 1993), 165-167.

87) 김송식, *교회 개척전략*, 36-37.

2. 교회 개척의 유형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다. 교회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은 모든 족속에 맞는 교회를 세움으로 세례를 주고 양육하여 또 다른 교회를 재생산하라는 명령으로 이해된다(마 28:18-20).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개척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복음을 위하여 또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다. 교회 개척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구분된다.

가. 교회중심의 개척

교회중심의 개척은 기존의 모교회가 분립하거나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한 감사와 기념으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모교회가 선교 전략으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가장 흔한 형태의 하나이며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개척을 준비하고 물질과 목회자를 세우고 함께 동역할 헌신자들을 선발하여 그들을 훈련하고 적절한 지역과 장소를 선택하여 개척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개척은 전 교인을 개척에 깊숙이 끌어들이며 안정된 개척사역이 펼쳐지고 훈련된 평신도에 의한 효과적인 양육으로 기존 교회보다 더 나은 목회철학과 시스템으로 교회를 이끌 수 있다. 교회에 의한 교회 개척은 지극히 성경적인 방법이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척사역이다.⁸⁸⁾

사실 개척으로 인한 어려움과 아픔은 실로 말할 수 없이 큰 것인데, 이러한 방법은 그런 일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일이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이 방법은 교인들 중에 새로운 교회의 핵심이 되라는 격려를 받고 미리 정해진 시간에 교회 개척자의 지도하에 모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는 것이다.⁸⁹⁾

교회중심의 개척 방법은 새로운 교회만 탄생시키고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교회 교인의 훈련과 성장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대부분의 모교회들은 지교회로 옮겨간 사람들의 공백이 곧 새로운 교인들로 채워지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 모교회와 지교회는 함께 성장하여 어느 한 교회도 잃는 것이 없게 된다.⁹⁰⁾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88) 김중포, *대형교회 숲 사이의 아름다운 교회*, 53-54.

89) Peter Wagner, *교회 개척 이렇게 하라*, 서로사랑 편집부 역 (서울: 서로사랑, 2007), 64.

교회들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여 양육하기를 원하신다.

나. 목회자 중심의 개척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개척 유형 중의 하나로 목회자의 목회철학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다. 목회자가 주변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독자적으로 개척함으로써 모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교회가 성장하고 자립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목회자 중심인 경우에는 인적자원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물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척 초창기에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 방법은 목회자가 소명을 받고 개척하는 방법이며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개척해온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요 절대 다수가 취한 형태이다. 개척하는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 교회 개척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는 방법이다. 본 교회 역시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그 후 상가를 얻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를 취했다.

다. 평신도 중심의 개척

교회개척에 마음과 뜻을 같이하는 평신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는 경우이다. 목회자가 없이 평신도들이 모여 교회를 구성하고 예배드리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도 교회가 성장하면 나중에 목회자를 청빙한다. 이런 경우 목회자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된다. 이 경우 목회자와 관계없이 교회가 안정되게 성장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평신도가 설교하고 복양하며 교회를 운영하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라. 교회의 분규로 인한 개척

기존 교회에 분쟁이 생겨서 몇 사람들이 개척하게 되는 경우다. 그러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서 한국교회는 상당히 많은 교회가 이런 상황에

90) 민장배, *교회개척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50.

서도 큰 교회가 많이 세워졌다. 이런 경우는 독자분립식 개척보다 한결 쉽게 자립하고 교인들 역시 훈련된 사람들로서 사명감이 강하여 노련한 개척으로 특별한 분제없이 자라게 된다.⁹¹⁾

권문상은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담임목사와 장로간의 내결 구도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즉 장로들이 담임목사의 복회 스타일에 만족하지 못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사례를 차지한다고 한다. 불투명한 제징이나, 원로목사와 후임 목사측의 대결로 세상이 다 알 정도로 흥역을 치른 경우다.⁹²⁾ 특히 장로교의 경우 항존직으로서의 장로 제도에 주요 원인이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어떻게든 손질하지 않으면 안 된다.⁹³⁾ 이런 고질적인 일들이 후유증을 낳게 되는 것이다.

마. 독지가를 통한 교회개척

제정적인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기념교회를 세우는 방법이다. 독지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반면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인, 교회, 기관, 교단 등은 이러한 독지가를 찾아내어 교회를 개척하기 힘써야 한다. 장점은 재정적인 안정감과 분명한 비전이 있으며 개척지역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독지가를 드러내기 쉽다. 즉,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으로 포장하여 하나님의 영광보다 독지가를 더 드러내기 쉬우며 하나님의 섭리보다 독지가의 계획에 따르기 쉽다. 또한 독지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독지가를 찾아가게 될 것이고, 지체들도 개척자의 말보다 독지가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독지가의 철학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다.⁹⁴⁾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순수하게 헌금하여 교회를 세우는 예도 많다. 목회자로 하여금 목회에 전념하도록 돕고 헌신적으로 기도하며 복음의 수레바퀴를 이끌어 가는 독지기도 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지금도 교회개척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 가고 있는 것이다.

91) 김종포, *대형교회 숲 사이의 아름다운 교회*, 52-53.

92) 권문상, *부흥 어개인 1907*, 45-47.

93) Ibid., 51.

94) 민장배, *교회개척학*, 63-65.

제 2 절 교회 개척의 올바른 방향

앞 절에서는 교회 개척의 정의 및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제 본 절에서는 교회 개척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척자의 분명한 소명의식과 개척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목회자의 리더십과 자질도 교회 개척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1. 분명한 소명의식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확실한 소명에 대한 확신으로 사역할 때 사명대로 살게 되며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에 전인격적으로 응답하게 된다. 교회 개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척자이며 개척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이다. 교회개척은 개척자의 소명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분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는데도 개척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순종하여 개척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특히 개척자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될 때 성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무슨 일이든지 올바른 동기가 앞서야 그 일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으며, 이성적으로 결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개척 목회자로 삼으셨다는 신적 명령에 대한 확신과 이성적인 결단이 없이는 개척을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개척자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며, 대내외적으로 도전과 환난을 리더로서 극복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모세와 바울같이 소명의식과 이성적인 결단이 전제되어야 한다.⁹⁵⁾

남서울교회 원로목사인 홍정길은 교회 개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회 개척 의지가 뚜렷한 하나님의 사람, 즉 목회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목회자의 본질적인 자질과 개척 교회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95) 민장배, *교회개척학*, 70-71.

첫째, 교회를 새우려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신앙고백이다.

둘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형벌, 죄의 영향권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나 목회자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의지해 그때그때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다. 목회자의 최대 관건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이다.

넷째, 바른 삶이다. 자기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회자를 가리켜 성경은 감독이 다른 사람에게 책망받을 일이 없다(딤후3:2)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품으로 날마다 나뉘어져야 한다. 온전함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⁹⁶⁾

하나님은 교회가 개척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교회 성장의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하여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개척자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특별한 어떤 것을 행하실 수 있음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리라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

엘머 타운즈(Elmer Towns)는 교회 개척에 있어서 개척자의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목사가 믿음을 원인적/중재적으로 생각하든지, 믿음을 수동적/수단적으로 생각하든 지간에... 자기들의 믿음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은 성장하는 교회를 가지게 된다.⁹⁷⁾

건강한 교회 설립을 위해서는 비전을 세워야 한다. 비전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을 의미한다. 비전이 크면 하나님의 능력도 크게 나타난다. 비전이란 우리에게 아직 미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현실이다. 하나님의 현실을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요, 비전의 목회자만 건강한 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⁹⁸⁾

성공적인 교회 개척에 있어서 지도자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개척이야말로 하

96) 이상대, *교회개척 컨설팅* (서울: 서로사랑, 2012), 43-46.

97) Peter Wagner, *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홍원팔 역 (서울: 도서출판 알뜰기획, 1994), 61.

98) 명성훈, *당신의 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 (서울: 국민일보사, 1995), 19.

나눔이 시키는 일이 되어야, 하나님께 붙잡힌바 되어야, 하나님 때문이라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 개척은 원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목회자라도 개척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 교회 개척의 의지가 뚜렷하고 열정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이다.⁹⁹⁾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행 1:8). 그러므로 이러한 분명한 소명의식으로 교회가 개척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

2. 목회자의 분명한 비전

소명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지면 이제 어떤 교회를 개척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 즉,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과 함께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명의식과 목적의식,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의식을 확실히 해야 한다. 교회의 비전 혹은 목회철학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다. 모두 다 똑같은 교회를 개척할 필요는 없다. 나에게 적합한 교회의 모습은 다른 교회와 다를 수 있다. 오히려 달라야 한다. 교회 개척자들은 개척될 유형을 결정하고 그 유형에 맞는 개척의 전략을 확보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개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락하신 비전을 따라 교회를 조직하고 사역을 정하고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비전은 방향성을 갖게 할 뿐 아니라 목표를 향하여 움직이는 에너지의 역할을 한다. 즉, 효과와 효율 모두를 얻게 하는 것이다. 비전은 영상화하는 기도를 통하여 발전되어야 하고, 지체들과 함께 공유하여 동기를 유발해야 하며, 인적·물적 자원을 통한 지조직과 수정과 보완을 통하여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비전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깨달게 하심을 통하여 얻어져야 한다.¹⁰⁰⁾

목회자의 분명한 비전은 목회철학의 정립을 통해서 드러난다. 목회자는 자신의 비전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는 가운데 비전을 세워야 한다.

강준민은 개척자가 가진 것이 있다면 꿈, 희망, 모험 정신이다.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는 선구 정신이다.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배경도 없이, 다만 복음을 손에 들

99) 목회와 신학 편집부, *교회개척*, 105.

100) 민장배, *교회개척학*, 72-73.

고 시작하는 것이 개척이다. 젊은 신학도들이나 목회자들에게는 개척자가 멋있게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멋만으로 살 수 없고, 정신만으로 살 수 없다. 꿈이란 그렇게 쉽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개척자의 꿈이 클수록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고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다고 하였다.¹⁰¹⁾

3. 목회자의 리더십

건강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목회자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 개척에 있어서 목회자의 리더십은 대단히 중요하며 리더십이 약할 때 교회가 흔들리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교회가 성장하는 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다. 교회개척은 최초 개척자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리더십은 교회를 목양하는 직분자, 특히 목사로 안수를 받은 자에게 있다. 그러나 성직자를 평신도와 구별되는 새로운 계층으로 생각될 수 없다. 개척 교회에서 진정한 지도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교회는 독단적인 그룹이 아니다. 또한 민주주의나 사회단체와도 다르다. 이는 교회론적인 문제로서 교회 질서와 관계있으며 실제적인 교회 행정과도 연관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성경적인 지도력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력은 섬김과 희생을 통한 것이었고 그분의 권위는 섬김에 의해 주어진 것이었다. 목사로 안수 받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경건함, 신앙, 소망, 사랑, 희생적인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하는 백성들이 세상을 향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돕는 데 자신을 헌신하는 귀한 지도자들이다.¹⁰²⁾

개척 교회의 지도자는 주님을 위한 성도들의 종으로서의 위치를 늘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 개척자의 지도력은 종으로서의 지도력에 있으며, 이는 먼저 성직자라는 자기의식의 굴레를 벗어 던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도력의 은사인 것이다.

목회자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는 사람을 볼 줄 알고, 사람을 키울 줄 알고, 쓸 줄 아는 능력이다. 지도자는 사람들을 신명나게 하는 자다. 직접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가 아니라 신명나게 뛰도록 격려하는 코치다. 또 사람을 믿고 과감하게 일을 분담하여 맡길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이익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지도

101) 목회와 신학 편집부, *교회 개척*, 113.

102) 이상태, *교회 개척 컨설팅*, 14-15.

자 자신이 철저히 교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¹⁰³⁾

전통적 교회의 지도력은 한 개인인 목사에게 집중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주님과 바울의 방법은 아니었다. 찰스 밴 영겐은 지도력은 믿음의 공동체가 몇 사람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가 공동체 안의 모든 성도들이 받은 영적 은사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때 일어나는 ‘연합사건’이다. 이런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창의적이고 자의적이며 비전이 있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이 있는 인물이다.¹⁰⁴⁾

장성배는 전략도 좋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리더가 중요하다. 리더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사람이다. 길이 있는 곳은 누구나 간다. 개척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곳에 개척하는 것이 바로 리더이다. 성공한 곳을 따라가는 것은 리더가 아니다.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¹⁰⁵⁾

목사에 대한 교인들의 바람을 무엇보다 설교를 잘하는 것이다. 설교는 목회자의 생명과도 같다. 목회자의 사역에서 설교의 중요성은 대략 사람들이 알고 있다. 특히 개척교회의 경우 설교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예배에서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목회자의 설교이기에 설교는 개척 교회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다. 개척교회 목사의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어떤 대상에게 어떤 넓이로 전하느냐 하는 점이다. 특별히 교회 개척을 생각하는 목회자들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도설교에 능해야 한다.¹⁰⁶⁾

그러므로 리더십의 중요한 사역은 설교, 말씀사역이다. 특히 개척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영적 고갈과 심적 불안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설교는 항상 복음적인 설교라야 한다. 복음의 중심 내용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이다. 복음은 어떤 제한된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한 사실의 선포이다. 복음은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이시다. 성경 중심의 설교만이 시대의 변천에 관계없이 건강한 설교가 되는

103) 안승오,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한 핵심 원리 7가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96.

104) 이상대, *교회 개척 컨설팅*, 17.

105) 목회와 신학 편집부, *교회 개척*, 18-19.

106) 이상대, *교회 개척 컨설팅*, 45-47.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성령으로 영감되고 감화 감동된 진리를 우리의 모든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의 크나 큰 특권임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임을 알아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이며 목사의 설교 그 자체가 진도이기 때문에 설교는 언제나 성경 중심적이어야 한다. 로버트 슈러(Rovert H. Schuller)는 목회 성공의 세 가지 비결 중 하나가 강단 사역인데 영감이 가득 찬 설교야말로 말씀에 굶주린 영혼들이 몰려들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¹⁰⁷⁾

두 번째는 사람을 키우는 훈련 능력이다. 복음만 전파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참된 성도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성도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해 목회자가 준비된 것이 없다면 개척할 준비가 안 된 것이다. 양육이 없는 교회는 얼마나 메마르고 공허한지 모른다. 개척하고 10년이 지나도 남은 성도가 없을 수도 있다. 설교는 믿음을 갖게 해주지만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음을 알았다.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도 대중 앞에 설교함으로 사람들의 신앙을 성숙시킨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을 불러 제자훈련을 통하여 신앙을 성숙시키셨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 양육과 훈련이 꼭 필요한 것이다. 개척 목회자는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케 할 나뭇대로의 양육 방안과 실제적인 훈련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능력이다. 개척교회는 소규모이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능력이 인간관계 능력이다. 또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겨야 한다. 비록 낯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가가 쉽게 말을 건네고 복음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하며,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을 돕는데 시간과 정력을 기쁨으로 바쳐야 하며 사람들의 문제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개척 목회자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품에 끌어안는 이른바 사람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¹⁰⁸⁾

넷째는 교회 운영 능력이다. 개척교회 목사는 교회의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알고 한발 앞서서 성도들에게 제시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는 목회운영

107) 이상대, *교회 개척 컨설팅*, 49-52.

108) 명성훈, *교회개척의 원리와 방법*, 67-68.

능력이 필요하다. 교회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교회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제정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상남은 어떻게 하고, 언행도 중요하다. 이것이 개척 교회 복회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복회 흐름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교회 운영하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복유를 위하여 더 확장되어 갈 것이다.

지도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선교 및 복회 사역을 위해 지도자와 피지도자의 연합 사건으로 발생된다. 개척교회 지도력은 섬김을 받으려는 주인이 아니라 섬기려하고 자기 복숨까지 내어 줄 수 있는 종으로서 섬길 때에 얻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개척 교회의 지도자는 먼저 종으로서 자신을 훈련하고 교인들을 훈련하며 그들의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지도력의 극대화를 구할 수 있다.¹⁰⁹⁾

4. 목회자의 자질

사람은 방법을 만들어 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계속 사람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면 개척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 개척의 의지가 뚜렷하고 열정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즉 목회자이다. 이제 교회를 세움에 있어 목회자가 기본적으로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첫째, 교회를 세우려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신앙고백이다. 목회자는 앞에 강이 있으면 뗏목을 만들고, 땅이 파이고 웅덩이가 있으면 그 웅덩이를 메우고, 홍해가 있으며 바닷길을 갈라서라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실행되어야 할 필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신앙고백이다.

둘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도 역시 죄의 형벌 속에, 죄의 영향권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된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앞에 쉽게 무너진다. 그러나 그렇지만 목회자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의지해 그때그때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말해, 우리 죄를 자백하여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분(요일

109) 이상대, *교회 개척 건설링*, 18.

1:9)'으로 인해서 죄 사함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다. 목회자의 최대 관건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느냐'이다. 특별히 설교를 어떤 대상에게, 어떤 넓이로 전하느냐에 따라 청중 집중력이 결정된다.

넷째, 바른 삶이다. 부족한 것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이다.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잘못을 교정하지 않으려 하고, 그 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언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온전한 의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품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야 한다.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더 완전한 것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러한 목회자의 인격적인 토대위에서 성장할 수 있다.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를 중심으로 모이고, 그렇게 세워진 권위는 결국 바른 목회를 말할 수 있게 한다.¹¹⁰⁾

그렇다면 개척교회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인가? 네 가지 특별한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비전의 사람이어야 한다. 이 비전은 특별히 개척교회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요소 중 하나이다. 목회자는 교회 전체를 한 목표로 집약시키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의 비전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목회자의 몫이다.

둘째는 적극성이다. 특별히 개척 교회 지도력은 적극적인 의지가 필수요소이다.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움에 물러서지 않는 백절불굴(百折不撓)의 의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굽히지 않는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셋째는 창의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창의력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오히려 더 큰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이 창의력은 부단히 생각하는데서 나온다. 많은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하며, 구중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넷째는 설득력이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의견이 너무나 다르고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지금 교회가 가는 방향이 어떠한

110) 목회와 신학 편집부, *교회 개척*, 104-108.

지, 이 일이 왜 필요한지를 실득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이 목회를 주장하고 지배할 때 그 목회는 빛이 난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목회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된다. 그리하여 교회 개척의 험거운 상황 속에서 문자 그대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절절히 경험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신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개척교회는 성령이 주도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뿌리내릴 것이다. 성령께서 개척 교회에만 주시는 축복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교회의 영광이 이 땅에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한다.¹¹¹⁾

마지막으로, 교회 개척 목회자의 자질 중에 중요한 하나는, 자신의 영혼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회자의 영적 침체도 결국 마음 관리를 잘못된 데서 온 것이었다.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영혼 관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매일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었고 생각에 있었다. 내면의 세계를 잘 관리하는 목회 승리의 비결이 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한다. 목회자는 영혼, 마음, 생각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또한 영혼, 마음과 육체가 전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말씀 묵상이 도움이 될 것이다.¹¹²⁾

제 3 절 교회 개척을 위한 준비기도

1. 교회 개척 준비 기도의 중요성

예수님은 기도애 깊이 불두함으로써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그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기도애 쏟는 집중력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더불어 평온한 교제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 했다. 기도는 예수님의 호흡이었으며, 생명의 원동력이자 놀라운 사역의 비밀이었다. 기도는 교회사의 모든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의 첫째 표시였다. 조지 화이트필드(George Whitefield)는 정확하게 매

111) 목회와 신학 편집부, *교회 개척*, 108-111.

112) Ibid., 117.

일 10시에 잠자리에 들었고, 기도하기 위하여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존 웨슬리는 매일 2시간을 기도에 투자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고 늘 말하곤 했다.

특히 교회 개척의 목회자의 생활은 경건해야 하고 신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도생활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목사의 생활은 기도의 생활이다.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처하든지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생사에 관한 큰 사건이 돌발하는 경우 외에는 기도시간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¹¹³⁾

리처드 토리(Richard A. Torry)는 분석한다. 목사의 기도생활이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열정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목사의 기도는 교인들로 하여금 은혜와 복을 받도록 간구하는 축복 기도이다.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능력있는 설교와 힘찬 목회를 할 수 없다. 목사의 기도생활이 교회 부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므로 목사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한다.¹¹⁴⁾

2. 교회 개척 기도회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개척 기도회는 매우 중요하다. 먼저는 개척을 하는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함께 동역할 사역자들과의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시간이다. 경천교회는 목회자가 기도하는 교회이며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교회이다. 1년 동안 교회개척을 위해서 기도했다. 목회자 부부는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제 4 절 교회개척 지역선정

1. 교회개척 지역 선정의 중요성

교회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적절한 지역과 위치의 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

113) 목회와 신학 편집부, *교회 개척*, 52.

114) 이상대, *교회 개척 컨설팅*, 53.

지역과 위치선정은 개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지역에 알맞은 목회비전과 전략을 세워야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모든 족속이 선교 대상이지만 개척교회마다 감당해야 할 대상이 있다. 한 교회가 온 우주의 모든 사람을 선교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선교 대상은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특히 21세기는 전문화시대이다. 교회도 어린이나 청소년 등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부리들을 먼저 정해야 한다. 그 대상에 따라 개척 지역이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척교회의 위치는 교회성장의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현대인들의 조급성과 쉽게 포기하는 성향을 감안하면 접근성과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어디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도로변이나 상징성이 있는 곳, 등등이 위치선정의 요소가 될 수 있다.

2. 지역조사 및 이해

지역 정보 조사를 통해 효율적 선교와 복회를 할 수 있다. 교회의 정보조사 행위는 성경이 증언하는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 지역 정보조사는 목회자로 하여금 주요 목표 그룹 선정에서부터 시작하여 보다 광범위한 크리스천 커뮤니케이션 분야인 예배, 설교, 보다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목회 체제,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확실한 그림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¹¹⁵⁾

특히 교회를 개척할 위치를 지혜롭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인구통계학이다. 다행히도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은 인구 과학의 전문가가 아닌 교회 개척자들도 상세한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 정보는 누가 어디에 살고 있으며 또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알려 줄 것이다.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있어서 유익하다. 다양한 사람들의 그룹, 동질적인 집단, 인종그룹, 생활양식이 같은 그룹, 사회적 그물망, 또는 우리가 목표로 삼은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용어라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¹¹⁶⁾

115) 정병관, *복음혁명을 주도하는 도시교회 성장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9), 211-213.

116) C. Peter Wagner, *교회개척 이렇게 하라* (서울: 서로사랑, 2007), 85-86.

개척 지역을 선정하는 데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첫째, 교회개척 지역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교회개척 지역의 인구 변동, 지역 개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 구도심 지역보다는 개발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넷째,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다섯째, 비전에 맞는 대상의 인구 변동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¹¹⁷⁾

가. 인구조사

교회 개척의 목표 그룹에 해당하는 인구는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일반적 사역,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혹은 빈민 사역이 필요한 지역인가를 알기 시작할 때, 그 지역이 요구하는 필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전입과 전출되는 인구의 변화도 조사 대상이다.

나. 종교적인 조사

개척할 지역의 목표 그룹에 대한 인구 조사가 끝나면, 종교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역에 기존에 세워진 교회, 교단에 속한 교회의 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종교 조사를 통하여 교회개척이 질실히 필요한가를 파악해야 한다. 대상자 중 개척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원하는 지역 인구를 얼마이며, 교회에 연관된 사람들이 얼마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지역적 특색 조사

개척할 지역의 도시와 농어촌의 형태에 따른 조사는 기본적인 조사이며, 지역의 규모나 인구에 따라 세분화되어야 한다. 주거지역이 상업, 공업, 주택, 아파트 등과 자가 주거인지와 임차에 따른 주거환경 여부와 시세까지 조사되어야 한다. 지역의 주요 교통수단, 주요 산업, 경제적 교육적 수준, 직업 분포, 주부들의 역할, 문화 시설, 스포츠나 여가 활동 등 개척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

117) 민장배, *교회개척학*, 79-80.

라. 목회계획 수립

교회개척 지역의 인구 조사와 종교 조사, 지역 특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에게 적합하도록 목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척교회가 개척할 지역의 주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목회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목회 전략과 프로그램 준비는 이동성장과 회심성장에 따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된 교회가 되기 때문이다.¹¹⁸⁾

제 5 절 교회 개척 기초 멤버

1. 교회개척 기초멤버의 중요성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핵심 교인을 구성하는 것이다. 교회개척의 전문가인 로버트 로간(Robert E. Logan)은 교회개척을 인간의 출산에 비유하고 있다. 그는 계획을 세우는 일을 임신이라고 부르고, 핵심 교인을 구성하는 것을 태아라고 부르며, 최초의 공식적인 예배를 탄생이라고 부른다. 로버트 로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어느 정도 발전하지도 아니한 채 서둘러서 공식적인 첫 예배를 드린다면, 유산된 아기와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반면에 태아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교회는, 마치 태반이 파손되어 아기가 혈액과 영양분을 잃어버리듯이, 그 운동성과 비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¹¹⁹⁾

2. 교회 설립 기초 멤버의 유형

교회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를 위한 첫 번째 목표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목회자가 사역할 최초의 사람들이 핵심 교인들이다.

피터 와그너는 핵심 교인을 모으는 9가지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¹²⁰⁾

118) 민장배, *교회개척학*, 80-81.

119) Wagner, *교회개척 이렇게 하라*, 103.

120) Ibid., 105.

가. 분봉(Hiving off)

반약에 당신이 교회개척의 방법론으로서 기존 교회로부터 일정한 수의 교인들을 분봉 받는 모델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최초의 핵심 교인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 또는 이미 필요한 만큼의 핵심교인들을 확보했을지도 모른다.

나. 가정에서의 성경공부

핵심 교인을 구성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씩, 대개 주말 저녁에 모여서 성경공부 반을 운영하는 것이다. 핵심 교인을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경공부 반의 회원이 되기로 작정한다면 그들은 또한 새로운 교회의 구성원도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 가정 방문

핵심 교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가정 방문을 해본 사람들의 현장 보고서는 다양각 색이다.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의 인격이 가장 주된 요인이다.

라. 가정 방문 기도

그들은 교회의 모임에 초대하거나 4영리를 제시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와같은 종류의 사역을 더욱 잘 받아들인다는 사실이다.

마. 어린이 행사

어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계획된 어린이 행사를 지원하는 것도 개척 교회의 핵심 교인을 구성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이다.

바. 성인들을 위한 행사

핵심 교인을 모으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성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 목표로 삼은 사람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만 한다.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목표로 삼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다.

사. 교회개척 십자군

십자군은 초교파적으로 많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의 지역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아. 광고

광고도 가정 방문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난다. 광고는 매우 발달한 산업이 되기 때문에 아마추어가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다.

자. 텔레마케팅(Telemarketing)

비록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그들 모두와 접촉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면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을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게 해 준다. 새로운 교회의 핵심 교인들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동안에 비전과 애지와 활동들은 교회 개척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¹²¹⁾

제 6 절 교회개척 재정 마련

교회를 개척하는 데 최대 어려움은 재정이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교회의 시설은 물론 개척자 가정의 생활을 위협하고, 교회의 존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개척교회의 위치가 좋을수록 교회성장이 가속화되고 교회 건축의 부담이 없는 교회일수록 새로운 신자들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는데 모두 재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 개척자는 재정 후원팀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개척자들이 재정 후원팀 없이 개인적으로 준비된 자금을 가지고 시작하거나 친인척을 중심으로 후원을 받는데 이는 한계가 있다.

교회 개척의 필요성과 비전을 통해 성장 때까지 재정을 후원할 팀을 확보하는 것은 교회개척에 확실한 자원이다. 개척자는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재정후원팀과 공유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도록 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게 하여 동역자 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 바울도 빌립보교회로부터 재정후원을 받았

121) Wagner, *교회개척 이렇게 하라*, 103-116.

다.¹²²⁾

1. 교회 개척 및 시설 자금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람이나 재정이나 장소도 없이 시작하는 것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교회 개척의 시작은 재정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역했던 교회에서 후원해 주는 방법일 것이다. 그 외에도 대형교회나 신후배, 또는 독지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교회 개척하는 목회자의 인간관계나 인격이나 믿음을 보고 후원하는 방법이다. 그들은 개척자를 알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또한 교단 총회나 노회에서 돕는 지원도 있지만 본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에서는 교회개척 후 3년 정도 지난 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대부분이 교회 개척자인 목회자의 사비로 충당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사택을 상가 한 부분에 만들고 그곳에서 거주하는 일이 많다.

시설은 후원자나 지인들의 도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돕는 자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 때문이다. 교회 개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며, 또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데 큰 힘이 된다. 교회 개척은 반드시 재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여러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

2. 교회 운영 및 목회자 생활비

교회 운영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교회 개척을 시작하지 말아야 할만큼 개척 자금이 준비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교회 운영자금 및 목회자 생활비가 없어서 이, 삼년 목회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일도 적지 않다. 교회가 개척되어 자립이 될 때까지 목회자의 사례비, 예배장소 사용료, 그 외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이 요구된다. 개척 교회를 지원하고 돕는 것은 재정적으로 많은 돈이 드는 어려운 일이다.¹²³⁾

교회 개척의 가장 어려운 점은 재정문제이다. 재정은 교회 개척자의 생존 욕구와 목회에 관계된 것이므로 중요하다. 그러나 교회개척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한

122) 민장배, *교회개척학*, 74-75.

123) 김송석, *교회 개척전략*, 33-34.

다.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워주시리라 믿으며, 하나님의 이 명령을 준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1-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라고 한다. 하나님의 일애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교회 개척자는 이 성경말씀을 믿어야 한다. 단지 구할 것이 있다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스스로 완성해 가신다. 따라서 위치 선정이나 재정문제, 기타 모든 계획과 과정을 스스로 이끄시는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과 과정 속에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따라서 개척자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신들이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이다.

제 4 장

남양주 지역의 배경 및 특성과 지역선정 이유

앞 장에서는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는 데 필요한 여러 준비와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자는 남양주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본 장에서는 경천교회가 위치한 남양주 지역의 배경 및 특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교회 개척지로서 남양주시를 선정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제 1 절 남양주 지역의 지역적 배경

남양주는 역사적으로 양주의 남쪽과 기타 인접한 시·군과의 행정구역 통폐합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현재 남양주시만의 독자적인 역사 형성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양주를 중심으로, 특히 진접·진건 일대인 풍양에 초점을 맞추어 남양주 지역의 간략한 변천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남양주지역은 수석리 선사유적지와 토성에서 나타나듯이, 한강을 중심으로 선사문화를 꽃피웠던 곳이다. 행정적으로 지금의 남양주시는 1980년 양주에서 남양주군이 신설됨에 따라 독자적인 행정구역을 갖게 되었다. 1986년에는 구리읍이, 1989년에는 미금읍이 각각 시로 승격되면서 남양주군에서 분리·독립되었고 이후 1995년 1월 1일에는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되어 남양주시로 승격되었다.¹²⁴⁾

남양주시는 현재 3읍, 6면, 6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도농통합으로 행정구역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읍·면에는 행정리와 법정리가 있지만 대부분 행정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동은 크게 행정동인 양정·지금동과 법정동인 일패·이패·삼패·가운·수석·지금동으로 나뉘어진다. 따라서 양정동처럼 행정동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지금동

124) 남양주시지편찬위원회, *남양주시지 제 1권 역사* (경기: 경기출판사, 2000), 3-4

과 같이 법정동·행정동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일폐·이폐·삼폐·가운·수석동과 같이 법정동으로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와부읍(瓦阜邑)과 진접읍(榛接邑), 별내면(別內面), 퇴계원면(退溪院面), 진건면(眞乾面), 수동면(水洞面), 조안면(鳥安面), 오남면(梧南面)은 본교회가 속한 지역으로 본래 풍양현 지역으로 양주군에 속하였으며 진천면과 접동면 일대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이 지역은 진건면에 편제되었다. 팔현리는 진천면 팔현리를 그대로 편제한 것이며, 오남리는 진천면 어남상·어남하·오산리 전부와 단곡리의 일부를 합하였고, 양지리는 진천면 양지·단곡리·접동면 중포리 각 일부를 개편한 것이다. 오남은 오산리의 '오'자와 어남상리의 '남'자에서 유래한 것이다.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 11027호에 의거 진건면에서 진접면으로 이관되었고, 1989년 진접읍 오남출장소가 개설되었으며, 1995년 5월 6일 시조례 제 140호에 의거 오남면으로 승격되었다.

1998년 인구가 약 2만 명에 불과하던 남양주시의 인구는 2008년 10월에는 50만을 넘어 전국에서 13번째 대도시가 되었고, 2015년 1월 현재 인구수는 거의 64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은 수도권 인구의 유입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과 인접하여 동일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제 2 절 남양주 지역의 지리적 배경

1. 지리적 위치와 변적

남양주시는 행정구역상으로는 1특별시, 5시, 2군과 접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동(東)으로 양평군과 가평군, 서(西)로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南)으로 하남시와 광주시, 북(北)으로 포천시와 접하고 있으며, 남양주시는 동서간 26킬로미터, 남북간 30킬로미터의 인장거리를 갖는다.

남양주시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곳이며, 연개교 통망 구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데 유리한 지리·경제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도시로서의 변모를 갖춘 도시이다.

이 지역은 선사시대부터 한강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적 번영을 이루었던 지역임

은 물론 삼국간의 쟁탈지역으로 등장할 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또한 백성을 아끼고 나라를 사랑했던 조선후기 최대의 학자이자 시인이었고 유명한 과학자였던 다산 정약용을 배출한 곳이며 여러 훌륭한 인물과 수많은 문화제가 산재해 있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이다.

남양주시는 지리적으로 경기 동북부지역에 위치하며 녹색 문화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동북쪽으로는 북한강을 사이로 가평군과 양평군, 서쪽으로는 왕숙천·불암산·수락산을 경계로 구리시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북쪽으로는 운악산·서리산을 경계로 의정부시와 포천군, 남쪽으로는 한강을 경계로 양평군·광주군·하남시와 접하고 있다. 시 전체는 동북쪽으로 주금산·서리산·축령산·운길산에, 서쪽으로 운악산·수락산·불암산에 에워싸여 있고, 그 가운데 천마산이 솟아 있다. 남양주는 지리적으로 북부지역에 산이 많고 남부지역에 구릉이 많으며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남양주시는 '녹색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남양주지역이 분리되기 이전에 속했던 양주군은 면적이 1020.34km²로 광주군과 더불어 경기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3년부터 양주군의 일부 지역이 의정부시와 서울특별시 도봉구·노원구·중랑구 등으로 떨어져나가고 1980년에는 남양주군이 분리되었다. 이로써 양주군의 면적은 419.38km², 남양주군의 면적은 495.63km²가 되었고, 남양주지역은 독자적인 행정구역을 이루게 되었다.

2. 남양주시의 지형

한반도의 등뼈를 이루는 백두대간은 백두산 병사봉에서 시작해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1400km의 크고 긴 산줄기를 말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은 지형이다. 백두대간을 따라 남쪽으로 달려 내려오다 서남향으로 백암산·오성산·적근산·대성산·국망봉·명지산·천마산·도봉산·북한산 등이 700여 리의 줄기를 이루는데, 이를 한북정맥(漢北正脈)이라 한다.

남양주시는 한북정맥의 끝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남양주시의 뱀 가운데에는 천마산과 묘적산이 우뚝 서 자리잡고 있으며, 그 둘레에는 북쪽으로 용암산과 운악산이 포천군과 살피를 이루고 축령산과 서리산이 가평군과 경계를 이룬다. 동남쪽으로는 송리산·문암산·운길산이 양평군과 마주보며, 남쪽으로는 조조봉·적갑산·예봉산이 하남

시와 경계를 이룬다. 한편, 서쪽으로는 불암산·수락산이 서울과 경계를 이룬다. 이처럼 남양주시는 온통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평야라고는 왕숙천을 따라 진접읍 내각리·내곡리·연평리, 진건면 신월리, 지금동 등 개울가 유역이 고작이다. 남양주시의 지형은 원형 천막모양으로서, 마치 가운데 큰 지주를 세우고 둘레를 따라 지주를 세운 듯이 높은 산들이 배열되어 있다.¹²⁵⁾

남양주지역은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정도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농산물의 생산량이 적어서 부유한 지역은 못 되었다. 표고 50m 미만인 지역은 한강 유역과 왕숙천 하류지역이며, 50~100m 지역은 왕숙천 유역으로 연평들, 풍경내들, 배양리 앞들이다. 표고 100~200m 지역은 널울분지(호평동·평내동)와 수동면의 구운천 유역, 화도읍의 묵현천 유역, 월산천 일대가 여기에 해당하며 논과 밭이 어울려 있어 벼농사와 밭농사가 이루어진다. 표고 200~300m인 곳은 구릉지역인데 목초지로 개발이 가능하며, 300m 이상의 산지는 삼림지대이다.¹²⁶⁾

전체적인 지형지세는 남북으로 능선이 뻗어 내린 장방형의 산지로 지형 변화가 심하고 암반 노출지가 많다. 경사의 대부분이 30퍼센트 이상의 급경사면을 이루고 있으며, 주경사 방향은 남향 또는 서향이 많다. 남양주시는 한북정맥에 자리 잡고 있어 온통 산뿐이며 평야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적다.

제 3 절 남양주 지역의 사회문화적 배경

1. 사회적 배경

가. 인구현황 및 교육시설

남양주시는 지방과 서울을 연결하는 동북부 교통의 관문으로서 경춘선·중앙선을 비롯하여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울~덕소 간 한강북단도로가 지나고 있어 서울 도심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남쪽의 한강변을 따라 중앙선 철도와 양평으로 통하는 6번 국도가 나란히 지나가며 이 국도에서 분기한 국도가 동쪽 북한강변을 따라 가평 방면으로 통한다. 또한 의정부·동두천·포천과 연결되는 국도와 지방도로가 있다.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수도권지역으로 규제와 개발욕구의 상충지역이지

125) 남양주시, 남양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1998

126) 남양주시지편찬위원회, 남양주 시지 제1권 역사, (경기: 경기출판사, 2000), 37-38

만 도·농 행정이 공존하는 쾌적한 전원도시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계속적인 인구유입이 되고 있다. <표 1>은 2014년 남양주시의 인구수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2014년 남양주시 인구수

연도	세대수	인구수		
		계	남	여
2014	238,111	636,256	318,208	318,048

<표 1>에 나타나듯이, 2014년 기준으로 경기도 남양주시에는 238,111 가구 636,256명이 살고 있다. 남양주시 인구를 100명으로 친다면 남자 대 여자의 수는 50대 50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동네별로는 양정동·진접읍·별내면·수동면에선 남자가, 도농동에선 여자가 더 많다. 28명은 어린이와 청소년이고(19살 미만), 72명은 어른이다. 어른 가운데 8명은 노인(65세 이상)이다.

남양주시에서는 100명 중 15명은 화도읍에 14명은 외부읍에 살고 진접읍과 오남읍에 각 10명이 사는 등 절반 정도가 이들 4개 읍에 산다. 또 도농동엔 9명, 평내동엔 8명이, 진건읍과 별내면엔 각 7명이 산다. 퇴계원면엔 6명이 살고 호평동과 금곡동엔 5명씩 수동면과 지금동엔 2명씩 조안면과 양정동엔 1명씩 산다.

11명은 초등학교에 5명은 중학교에 4명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28명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6세 이상 인구 기준). 또 남양주에 사는 19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는 36퍼센트가 대학이상 학력자로 동네별로는 49퍼센트가 대학이상 학력자인 도농동이 가장 높다.<표 2>는 남양주시의 교육기관 수를 담고 있는 것이다.

<표 2> 남양주시 교육기관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특수대학원
55개교	30개교	18개교	1개교	1개교	1개교

나. 종교 현황

남양주시의 인구 100명중 53명은 종교를 갖고 있다. 24명은 개신교, 19명은 불교, 11명은 천주교 신자다. 개신교는 수동면에서, 불교는 조안면에서, 천주교는 금곡동에서, 각각 신자 비율이 높다. 특히 본 연구자가 섬기는 경천교회가 있는 오남읍 오남리는 개신교회가 통계적으로 100여개가 있다. 그중 30명이 넘는 교회가 30개 정도 밖에 안 되니 참으로 열악한 환경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교단별로는 여호와증인 1개, 안식교 1개, 하나님의 교회 1개, 구원과 1개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교회를 건축함으로써 전도하지 않아도 교인들이 많이 등록하는 현상도 있었다. 지역을 복음화하고 지역을 섬기는 일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서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도와야 한다. 일꾼의 협력과 제정의 도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지역은 지역을 섬기는 진집 오남지역교회연합회가 있다. 이 연합회는 2010년 기준으로 68개 교회가 소속이 되어 있는데 서로 협력하는 교회들이다.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20여 개이며 대부분의 교회는 상가교회로 대부분 열악한 환경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아 겨우 전세와 월세를 낼 정도인 것이다. 통합축일 경우 노회나 통회의 보조가 조금 있지만 타교단 교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으므로 부모나 친구 혹은 지인들의 선교비로 교회가 지탱되어 지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은 1년 한 해동안에 없어지는 교회가 10여개 정도, 다시 개척되어지는 교회가 10개정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이 부흥케 하실 것을 본 연구자는 믿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불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남양주시 기독교 연합회는 연합부흥회를 통한 현금으로 장학금 지급 및 어려운 교회와 지역사람들을 돕는데 큰일을 감당하고 있다. 특별히 회장과 임원은 남양주시 복음화를 위해 정통교회의 신학을 지키며 복음을 지키는 데 큰 힘을 감당하고 있다. 자율적이면서도 스스로 봉사해 나가는 목회자들의 협력은 참으로 아름답다.

2. 남양주 지역을 선정한 이유

본 연구자가 남양주 지역을 교회 개척지로 선정한 이유는 결혼 후 10년 동안 이 지역에 살면서 남양주 지역을 잘 이해하며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999년 그 당시 이 지역은 진접지역으로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었던 곳이다. 이곳에서 살면서 이 지역

에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마음을 정했던 것이다.

두 번째, 본 연구자가 남양주 지역을 개척지로 선정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믿는다. 부교역자로 사역하면서 1주일에 2회씩은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부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철야하는 시간이 있었다. 목회자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열망은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철야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두가지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다.

첫째는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곧이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겔 13:19). 둘째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렘 33:3) 이 두 가지 말씀이었다.

너부나 선명하게 들려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개척하였다. 아내와 세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이 지역에 교회를 개척 하였다. 그 당시에는 황량한 장소였다. 그러나 이 지역에 광야이요 또한 가나안이었다.

이 지역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며 본 연구자의 비전과 정서가 맞는 지역이었다. 또한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어서 교회역시 계속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실제로 경천교회는 젊은 부부가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를 개척하는 위치를 선정하는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결과였다. 그 결과 경천교회는 창립 16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미얀마 교회를 건축하는 데 큰 힘이 되었고, 세 번째는 진접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로 그리고 현재 네 번째 개척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지역에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장소임을 확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개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경천교회의 개척 과정 및 성장 방안

앞 장에서는 경천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남양주시의 지역 배경과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경천교회라는 새로운 교회가 남양주시에 세워지게 되었다. 본 장에서는 경천교회 개척의 실제적인 과정 및 개척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특히 경천교회 개척을 위해 본 연구자가 어떻게 비했는지, 소명과 비전, 목회자의 철학을 본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본 장에서는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여러 전략들과 교회당 건축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경천교회의 미래 목회 사역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제 1 절 경천교회 교회 개척 준비

1. 개척을 위한 준비기도

앞의 3장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기도는 교회 개척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동시에 가장 우선해야 할 핵심 요소이다. 교회개척은 하나의 영적전쟁이므로 교회개척의 성공 여부는 기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 개척에는 많은 영육간에 그리고 물질로도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의 영적 힘을 얻는 생명선인 기도가 없이는 교회 개척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개척의 가장 첫 번째 준비는 기도이다.

본 연구자는 교회개척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구현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다. 기도로 개척을 준비하며 기도로 목회하며 기도로 성장을 원했다. 교회 개척자는 교회의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반드시 기도해야 함을 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예수님도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갯세마네 동산에서는 피땀을 흘릴 만큼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바쁘셨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으셨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셨고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셨다.

본 연구자는 성공적인 교회개척은 방법론을 이해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개인의 기도 삶을 개발할 때 되는 것임을 확신한다. 바쁜 시간에도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본 연구자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개척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지원하는 사람들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했다. 교회 개척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개척을 위한 중보팀이었고 대상은 부모부터 친구 및 동역자 부부와 자녀들 그리고 복음을 위한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기도에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들이었으며, 교회개척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재정적으로나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중보기도팀이 조직되었다.

2. 목회자의 소명

특히 교회가 개척되어 자립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에게 확신하는 설립비전이 있어야 한다.¹²⁷⁾ 앞에서 말했듯이, 개척하는 목회자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해야 한다. 소명에 대한 확신은 사명을 수행할 때 삶 전체의 방향을 잡아주고, 확신 있게 사명대로 목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그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에 복음을 걸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 개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이다. 교회개척은 개척자의 소명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는데도 개척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척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본 연구자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으로 개척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확신을 지금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개척 목회자로 삼으셨다는 신적 명령에 대한 확신과 이성적인 결단을 가지고 있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127) 명성훈, *교회개척의 원리와 전략* (서울: 국민일보사, 1999), 46.

3. 목회자의 실립 비전

개척교회를 시작한다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바른 기초를 놓은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인들의 마음속에 왜 교회가 존재하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밝혀 줌으로써 건강한 교회를 꿈꾸게 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²⁸⁾

특히 본 연구자는 2가지 비전을 꿈꾸었다. 첫째는 교회 존재론적 비전이고 둘째는 사명론적 비전이다.

먼저, ‘존재론적 비전은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교회가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알기 전까지는 사역의 의미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무엇도 목적을 앞설 수는 없다. 존재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왜’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사명론적 비전이다. 이는 사역과 관련된 것으로서 교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의미한다. 목표는 크고 대담해야 한다. 실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구성원이 최선을 다할 때만 성취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은, 매우 크고 대담한 것이었고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사도바울은 이 사명을 따라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생의 목표로 삼았고 실제로 그것을 성취했다.¹²⁹⁾

본 연구자는 교회 개척의 비전의 목표를 세웠고 이후에 사역의 비전을 세우고 개척하였다. 아마도 목표를 세우고 사역의 비전을 세우는 순서가 거꾸로 된다면, 교회는 건강성을 잃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없고, 교회 개척자가 개척을 하지만 그 교회는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이 될 수 없으며, 개척자가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순서가 올바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구현되어 가게 될 것이다.

경천교회는 이러한 비전에 4가지 목표를 세웠다. 예배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이다. 경천교회의 존재이유는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

128) 배종석, 양희승, 류지성,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 (서울: IVP, 2013), 72.

129) Ibid., 78.

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인다'이다.

비전이 없이는 교회를 개척할 수 없고 사람들을 인도 할 수도 없다. 비전은 교회 개척자에게 개척과 관련된 목회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게 한다. 비전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적인 목적에서부터 나와야 한다. 즉,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속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서부터 힘, 열정 그리고 계획이 나오는 것이다.¹³⁰⁾

경천교회의 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다. 교회의 성장은 교회의 건강성 회복을 지향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4. 목회자의 목회철학

목회철학이란 교회개척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되는 신학적 정신이다. 이는 목회자의 성격, 은사, 관심사, 비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이런 목회철학이 확실한 목회자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를 지향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척교회는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려면 담임 목회자의 목회철학이 중요하다. 목회자가 바른 목회철학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건강을 회복하고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제와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한다.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목회 본질과 흔들리지 않는 목회 철학이 있어야 한다.¹³¹⁾

본 연구자의 목회 철학도 올바른 신학적 기반위에 정립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다. 이것이 경천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막 12:30),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막 12:33).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함으로 세상으

130) 김송식, *교회 개척전략*, 49

131) 육한흠,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0), 6

로의 비탄의 소리가 높다. 본 연구자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하게 하며, 특히 예배 속에서의 변화와 등록 후 새 신자 성경공부를 비롯한 단계별 성경공부, 단계별 제자훈련 등 예배와 말씀교육으로 훈련시키고 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영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말했다.¹³²⁾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도우심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요 연약함이다.

칼빈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확증되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위탁 받은 말씀을 신지자들이 충성스럽게 선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다.¹³³⁾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이라고 묘사된다는 것이야말로 우연이 아니다.¹³⁴⁾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제한적이며, 부분적인 사랑을 원치 않으시고, 전폭적이며, 전의지적인 사랑을 원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누구나 매우 사소한 부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일면이 있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야 한다. 진정 이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가장 심대한 의무인 동시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지속시켜 주는 특별한 기회요, 기쁨에의 부름이다.¹³⁵⁾ 본 연구자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각 개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이웃사랑이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두 번째 계명으로 제시하는 바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짝을 이루어 율법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제시하고 계신다. 실로 하나님과 인간 사역의 수직적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대신적(對神的) 계명은 전제요 모범이다. 동시에 대인적(對人的) 계명은 대신적 계명의 필연적인 결과요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따라서 이 두 계명은 결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진정한 이웃

132) David. W. Hall & Peter A. Lillback, *칼빈의 기독교 강요신학*, 나용화, 손석태, 김구원, 라영환, 오창록, 윤태곤, 이학재, 장영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133) 김창영, *기독교강요(상)*,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141.

134) Gerhard Lohfink,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정한교 역* (철곡: 분도출판사, 2013), 150.

135) 강병도, *카리스중합주석* 제 5권 (서울: 기독교지혜사, 2006), 391-392.

사랑을 가능하게 함을 말하는 것이다.¹³⁶⁾

이런 신학적 의미에서 잘 정립된 목회철학은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조건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목회철학이 중요하나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경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짧고 푸른 교회”,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는 비전아래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예배와 교육, 전도와 사회봉사는 중요 주제이다.

본 연구자는 하나님께서 경천교회를 통해 맡겨주신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감화된 사람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된 인격으로 세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경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실 것이라 믿는다.

제 2 절 경천교회 개척 과정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시키기를 원하신다. 교회개척은 하나님의 뜻이다. 경천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경천교회는 개척된 교회이며 현재 16주년이 되었다.

1. 교회의 연혁

경천교회의 개척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이었다. 본 연구자가 마흔 살이 되어서 목사로서의 존재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개척하여 복음을 전하고 지역을 복음화 하는 것임을 알았다. 개척 당시 IMF가 시작된 1999년이다 보니 많은 지인들과 본 연구자를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모두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개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본 연구자는 휘경교회에서 교육전도사와 전임으로 사역으로 6년을 사역했고, 부목사로 빛과 소금교회에서 4년간 사역했다. 부교역자의 시간은 많은 것을 훈련받고 배우는 기회였다. 개척 당시 본 연구자는 준비된 재정이 없었다. 부모, 형제, 친구들에

136) 강병도, *카리스종합주석* 제 5권, 392.

게 돈을 꾸고 전세집을 얻어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현대아파트 102동 1103호에서 1999년 12월 첫째 수요일 아내와 함께 들어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이루실 그리고 앞으로 비전을 성장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했다. 감격과 감동의 시간이었다. 성령충만한 예배는 교회 건물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임을 다시 한 번 체험케 하기에 충분했다. 본 연구자의 진셋집에서 개척이 되었고 2000년 1월 개척예배를 드릴 때는 참석인원이 8명이었다.

2. 가정에서 예배시작

한국 교회의 개척 역사 속에서 목회자 혹은 개척자들이 가정을 중심으로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예가 많이 있다. 그 이유는 개척하는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개척 당시 튜원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을 중심으로 한 교회 개척은 한계가 있다.

피터 와그너는 그의 책, *교회개척 이렇게 하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킬 때에 당신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장소는 주택이다. 그것은 당신 교회의 성장 잠재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나 주택이라고 해도 전적으로 교회시설로 이용되어진 곳은 상관없다. 그렇지만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상관없다. 그렇지만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안된다. 그것은 잘 안된다는 것이다.¹³⁷⁾

교회는 누구나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목회자가 그곳에서 살고 있다면 성도들의 신앙의 자율성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이나 16장의 루디아 같이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된 예는 있지만 그러나 현대사회 속에서 개척장소를 가정으로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개인주의 성향이 팽배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생활수준보다는 조금 더 크고 아름다운 곳을 찾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시설도 중요한 것이다.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데에 있어서 사람

137) Wagner, *교회 개척 이렇게 하라*, 129.

이 사는 장소라면 사실상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사실상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1999년 12월에 첫 예배를 드렸다. 많은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또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이있음을 간증하게 된다. 그 해는 유독 다른 해보다 추웠으며 첫 예배는 수요일이었는데, 목사 부부 단 두명이 전부였다. 그러나 감동과 감격으로 교회개척 첫 예배를 드렸다. 그 후 2개월 후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맴비는 목사 부부와 자녀들 셋, 그리고 참석한 3명의 도우시는 분들이 있었다. 비록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예배는 감동적이었고, 기도는 뜨거웠고, 찬송은 아름다웠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에 충분했으며 기도로 시작했다. 기도는 참으로 중요하다. 복회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중요한 힘이다. 특히 교회 개척자는 큰 과업을 이루어야 하는데 기도의 중요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복회자는 영적인 일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로 훈련받아야 한다. E. M. 바운즈는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의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 많은 점에서 달랐지만 그들에게는 늘 공통적인 중심이 있었다. 그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하고 서로 다른 길을 통해 다녔을지라도 결국 한 곳으로 모였다. 그들의 공통점은 기도였다.¹³⁸⁾

가정에서의 교회개척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교회개척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일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본 연구자는 오히려 가정에서의 교회개척을 권장한다. 왜냐하면 미약함에서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3. 교회 개척지역의 상황

본 연구자의 개척 장소는 남양주시였다. 앞 장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남양주시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어우러진 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곳이며, 연계교통망 구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데 유리한 지리·경제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수도권 동북부

138) E. M. Bounds,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용복 역 (서울: 규장, 2009), 218.

의 기점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도시이다.

선사시대부터 한강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적 번영을 이루었던 지역임은 물론 삼국간의 쟁탈지역으로 등장할 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특히 경천교회가 개척된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는 아파트가 많이 세워진 지역이며 신도시 개발 지역이었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장소이기도 하다. 본 연구자가 교회를 개척하는 장소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다. 실제적으로 이 지역은 가구공장과 가구상점, 양계장과 돼지를 키우는 곳이 많았다. 경천교회의 설립 비전과 일치하는 장소이었다.

경천교회의 목적이 예배와 이웃사랑의 목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셨다. 2002년 3월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우게 되며 그 후 16년동안 장로 1명, 안수집사 4명, 권사 13명을 세웠다.

4. 교회 홍보

개척한 후 이후 교회는 주변 지역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척 교회를 알려야 전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방법은 아무렇게나 진행되어서는 안되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서 실천해야 한다.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교회를 알리고 홍보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경천교회는 홍보하는 교회이다. 전도지나 주보 그리고 주문 제작된 휴지, 불펜, 부채 등 수많은 불품으로도 홍보하는 교회이다. 전도지의 내용은 교회이름과 주소 및 약도 교회의 비전과 예배시간 등인데 경천교회는 활동적인 사진을 많이 넣어서 홍보를 많이 했다.¹³⁹⁾ 특별히 플랫카드(placard)의 홍보방법은 16년째 계속되어지고 있으며 디자인은 전문가가 디자인해서 인쇄소에 보내지게 된다. 이러한 개척된 작은 교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전도지나 교회 소개지, 전도물품 등은 교회를 알리는 데 매우 탁월했다. 주보 홍보 역시 좋은 방법이었으며 세련되고 아름답게 디자인된 주보는 아파트 전도에 큰 도움을 준다. 특별히 타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이사 오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보를 많이 찾는데, 이는 교회를 정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효과적인 교회 개척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홍보 전략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

139) 참조, 전도지는 부록 1.

다.¹⁴⁰⁾ 본 연구자는 개척 당시부터 플랫카드(placard) 홍보를 시작했다.¹⁴¹⁾ 본 연구자가 목회하는 경천교회는 남선교회를 중심으로 1년 52주 플랫카드(placard)를 달고 거두는 팀이 있다. 이들은 사계절 복음을 위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플랫카드(placard) 전도는 이 지역에 경천교회가 개척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의미에서 이었다. 그러나 홍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전파하는 것이 홍보의 목적이다.

5. 교회 개척과 성장

본 연구자가 섬기는 경천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된 교회이다. 1999년 목회자가 살게 된 아파트에서 시작되었다. 교인은 아내와 자녀 3 전체적으로 5명이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교회 개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축복이었다. 경천교회가 예배 속에서 성장하며 건강한 교회로 성장되어 갔다. 개척 자립시대와 성장 시대를 통해 경천교회의 개척사를 말하려고 한다.

가. 개척 자립시대(1999년 12월-2005년 5월)

1999년 12월 경천교회는 가정에서 개척한 이후 10개월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교회가 성장하고 10개월이 지난 때 어린이까지 38명의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교회 설립 후 연약하지만 교회의 형식을 취하고 세례와 성만찬까지 집례하는 교회가 되었다. 이후 2000년 10월 예배드리는 옆 아파트 상가 60평으로 1억 2천만 원 보증금과 월세 50만원에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동안 교회로서 교육관도 없었고, 다른 행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가정교회이지만 예배와 교육은 이루어졌고 세례와 성만찬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성도들이 가정교회에 왔다가도 또한 떠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본 연구자는 뒤늦게 이러한 것을 통감하고 전세로 교회를 옮겨가는 것을 목회의 제일 목표로 기도하였다. 왜냐하면 처음 가졌던 목회자와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의 마음이 성도들에게 떠나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정교회가 개척된 후 교회를 옮긴다는

140) 참조. 주보지는 부록 2.

141) 전도 플랫카드(placard)는 부록 3에 있는 실제 사진을 참조.

목표를 세운 뒤 그나마 교인들이 3분의 1정도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가정교회를 개척한 후 목회자로서 많은 기도와 생각을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목회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된 일이었다. 인간적으로 매우 힘들었고 고민도 많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후 전세를 얻어 교회를 옮기게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2001년 5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측) 동노회에 가입이 되고, 2005년 5월 노회에서 자립하게 되었다. 보조를 받은 적도 없었지만 이 일로 3천 만원을 보조받고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가 섬기는 경천교회는 가정교회로 개척 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했다. 특별히 경천교회는 서울 근교에 경기도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실패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 지역 자체가 농사짓는 농촌지역이며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곳이었다.

경천교회의 목적이 어려운 지역,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의 축복을 이라는 주제로 개척 되었고, 간출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젊고 푸른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되는 것이 목표였다. 또한 지역적 문제이지만 한부모 자녀나 맞벌이 부부가 많은 가정인 있는 곳이 이 지역의 특성이다. 그래서 경천교회는 자녀들을 돌보며 자녀를 통한 부모 전도를 적극 추진했다. 학생들에게 기타도 가르쳐주고, 드럼도 가르쳐주고, 영어와 수학 방과 후 청소년 공부 전도도 실천했다. 간식과 차를 준비하고 식사도 제공하는 시간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그 부모들과 자녀들이 전도된 경우도 많다.

그 후 7-8년이 지난 그 학생들이 자라 지금 찬양사역의 주역이 되기도 하며 예배에 중요한 위치가 되었다. 지금은 경천교회가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의 숫자가 많아졌다. 아동부 여름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등 교육부서에 특별히 지원과 관심을 갖는 것이 경천교회의 주요 우선순위가 된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관심을 갖는 것은 예배이다. 경천교회는 예배중심의 교회이다. 작은 교회이지만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예배에 충실했다. 모든 성도들은 각종예배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며, 또한 인도와 기도 그리고 특송에 참여함으로써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였다. 심야기도회는 뜨겁게 진행되었으며, 새벽기도는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자유로우면서도 경건하게 진행되었다. 본 연

구자는 교회라면 크든지 작든지 예배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천교회는 사역자 훈련이 강화된 교회이다. 훈련된 성도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장로나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 임직훈련은 1년 정도 진행된다. 예배와 전도 그리고 봉사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기도회나 성경고사 및 전도, 그리고 부익봉사를 실천하는 훈련의 시간을 갖는다. 사명자들은 주일 준비를 위해 매주 토요일 1시 30분에 모여 기도하고 주일을 준비한다. 교회 홍보를 위한 플렛카드(placard)를 걸고, 교회 전체를 청소하는데 분당 및 교육관, 카페와 운동장을 청소한다. 특히, 강대상 꽃꽂이와 주일식사를 위한 준비를 하며, 담당자들은 교육부서마다 부장을 중심으로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들에게 전화 및 심방을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아울러 진교인도 자기의 은사에 따라 한 가지 이상씩은 반드시 봉사해야 한다. 이것이 경천교회 교인의 의무이다.

경천교회는 지역을 섬기고 이웃에게 나누는 교회이다. 사도행전 4장 32-35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고 했다.

경천교회의 절기헌금이나 목적헌금은 지역을 섬기고 이웃에게 나누는 일에 사용된다. 교회 재정의 일부를 사용하지만 부활절이나 추수감사헌금, 성탄절 같은 헌금은 절반 이상 장학금이나 어려운 여건의 지역노인들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다. 경천교회는 교회 개척 후 16년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가장 기본적인 성장이겠지만 300여명의 성도들과 학생들이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감출 수 없는 교회로 성도들이 행복해 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나. 개척 성장시대(2005년 5월 - 현재)

경천교회는 개척된 후 4년 6개월이 되는 2005년 5월 이후 기본적인 자립을 이루

고 지속적인 성장과 부흥을 거듭하였다. 교회의 각 부서가 좀 더 내실있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시기였다. 이 시대는 교회가 엄청난 부흥으로 상가교회이었지만 1부 예배와 2부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120여명 정도였다. 학생 부서들도 부흥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교회부지를 구입하고 2006년부터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 이 시기가 아마도 경천교회의 가장 성장하는 시기였고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시기였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교회 건축은 2년 6개월동안 계속되었고, 제정은 전혀 없었지만 많은 헌신자들과 기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건축되었다.

교회를 건축하게 된 사건은 본 연구자의 아들이 갑작스런 희귀병으로 암치료를 받게 된 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교회를 지어 봉헌할 때 하나님 제 아들을 건강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아내는 3년 동안 교회 짓기와 아들의 암치료를 위해서, 본 연구자는 기도로 교회를 짓기를 집중하였다. 아마도 본 연구자의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했고,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한 적은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교회는 성도들이 떠나가는 일도 있었지만 또한 다시 전도되어 감동 가운데 등록하는 성도들도 있었다.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이 가운데 교회는 성장하고 희망찬 시기였다. 기도모임들이 생겨나고 이 또한 소그룹 현상으로 모두가 함께 한 목표로 기도하는 일을 감당했다. 구역도 성장하였다. 구역장을 중심으로 건축하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상가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이 성도들의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선교나 국내 어려운 교회 돕기와 구제 헌금이 활성화 되었다.

새벽기도회와 심야기도회가 있었는데, 특별히 월화목금 매일 저녁기도회가 있었다. 교회성장의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알고 함께 저녁기도회에 동참하고 있다. 16년이 지난 지금도 저녁기도회를 갯세마네 기도회라고 하면서 실행하고 있다. 모이는 숫자는 30-40여명 정도 되지만 이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고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특공대인 것이다.

본 연구자가 교회의 성장을 생각하는 것은 예배이다. 김승연은 그의 책,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에서 “기독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종교이고 교회 중심으로 예배와 기도를 위해 모이는 공동체이다. 과연 오늘의 예배에 감동과 감격이 있는가? 예배가 한번의 예배가 아니라 생애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인식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려야 한다.”¹⁴²⁾라고 한다.

특별히 주일 예배 역시 중요한 예배이다. 새 신자들이 있고 믿음은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성도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 좋은 성도들도 함께 예배드리는데 예배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이기 때문이다. 주일 예배는 생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찬양하고 또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도록 여러 가지 행사도 있다. 성찬 예배도 있고, 생일축하나 기념일도 소개하여 서로 함께 축하하며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식하게 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 설교하는 담임목사는 설교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 번의 실수나 한 번의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최고의 설교가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경천교회의 설교시간은 긴 편이다. 30분에서 35분 정도가 된다. 일반적인 교회의 25분 정도의 설교에 비하면 다소 긴 편이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설교자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다.

교회는 성도들이다. 교회를 이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른 성도들과 서로 서로에게 속하여 있다.¹⁴³⁾ 이런 의미에서 경천교회의 성장 요인은 공동체이다. 경천교회는 공동체적 교회이다. 특별히 주일점심 뿐만 아니라 모든 식사시간의 만찬이 있다. 주일 저녁식사, 수요일 식사, 목요일 경천밥사랑공동체 식사, 예배에 관련된 식사는 식당에서 이루어진다. 봉사는 사역자들이며, 봉사부장을 중심으로 봉사자들이 감당한다. 이 공동체 식사시간은 하나 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남에게 기쁨을 주는 시간이다. 주일 점심식사는 전교인이 참여하며 기념일이 있을 때에는 떡이나 과일을 준비한다.

온 교인과 자녀들 온 가족이 함께 식탁을 나눈다. 현대는 온 가족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데 교회에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나눔으로 가족들간의 유대관

142) 김승연,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5-6.

143) Dietrich Bonnhoffer, *함께하는 삶*, 김재훈 역 (서울: 일진사, 2000), 10.

계도 상승된다.

이러한 교회 운영은 교회의 성장을 가져왔으며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고 자부한다.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 행사의 실체는 뒷부분에서 언급할 것이다.

6. 전도를 위한 행사의 실제

*자연적 교회 성장*의 저자인 크리스찬 A.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도자라고 말하면서, 이미 갖고 있는 관계를 전도를 위한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한다.¹⁴⁴⁾ 개척교회의 전도는 작은 관계전도를 통해서 전도가 가능하다. 교회건물이나 시설 등이 없기 때문에 외형적인 전도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소그룹으로 구역에서 개개인이 전도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모든 성도들은 전도해야 한다.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인 경천교회 개척자는 사역 기간의 70퍼센트 정도를 전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교회가 성장하면 전도시간이 더 늘어야 되는데 이상한 것은 전도시간이 줄어든다. 개척 교회는 많은 시간을 전도에 힘써야 한다. 지역 사회의 전도 대상자들이나, 자녀들의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와 남자들이나 여자들에게 맞는 소그룹 개인전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전도해야 한다. 경천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이다. 본 연구자가 시무한 교회의 전도현황을 몇 가지 제시하려고 한다.

가. 전도대 전도

먼저, 거리전도이다. 이 거리전도는 전도부장을 중심으로 여전도회가 하는 전도인데 매 주일(월, 화, 목, 금) 실시하는 전도이다. 이 지역의 중심부인 농협앞에 자리를 잡고 커피와 음료를 준비한 다음 그리고 전도지와 주보를 준비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계절 계속된다. 이를 위해 전도부장은 오전 9시에 교회에 와서 물을 끓이고 커피를 만들어 전도준비를 하고 운행으로 봉사하는 전도대원의 봉사를 통해 운반 오전 10시부터 전도가 시작된다. 이러한 거리전도는 많은 영혼을 교회로 오게

144)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 성장*, 윤수인, 정진우, 박동건, 오대균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13), 34-35.

하였으며 교회 부흥의 큰 주춧돌이 되었다.

둘째. 이사전도이다. 이 전도방법은 월화목금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전도하는 방법인데, 이사오는 아파트 지역에 전도지와 물을 준비하여 전도대가 전도하러 가는 전도이다. 시간은 이사 오는 시간이 12시 정도이며, 식사 후 1시 30분부터 이삿짐을 옮기기 때문이다. 귀찮아하는 집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를 찾는다든지 또는 이곳에 이사 와서 교회를 새롭게 다니려고 하는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교회도 부흥의 축복을 받는다. 전도대원은 차량이 있어야 하며, 교회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과 열정이 있는 성도들이 한조로 조직되어 전도하는 것이 좋다.

나. 부서별 전도

남선교회, 여전도회 전도는 토요일이나 주일에 남선교회와 6여전도회가 각각 전도하는 전도방법이다. 회장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방법으로서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데에 장점이 있다. 아울러 자녀들의 어머니들이나 연세가 드신 남선교회 여전도회는 노인정 전도에 큰 장점이 있다.

구역별 전도는 금요일 구역예배를 드릴 때에 자녀 어머니나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전도이다. 구역장은 구역원들에게 함께 초청하기를 권면하며 대상을 작성한 후 실천하는 전도방법이다.

남선교회 부부초청 식사에 의한 전도는 믿지 않는 남편들을 함께 초청하여 식사를 하면서 친교를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 방법이다. 특별히 경천교회는 개척한 진접교회 남선교회 부부 초청을 함으로써 서로간의 교제와 복음의 전파를 동시에 실천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함께 만나 대단한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헌신의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된다.

다. 교회학교 전도

교회학교 전도는 주일학생들이 전도하는 방법이다.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선물을 주는 전도인데, 2부 순서로는 레크리에이션과 노래 율동이 있는데, 교회에 레크리에이션 전문가가 있어 아름다운 전도가 된다. 이 또한 많은 학생들이 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어린이들은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어서 복음으로 구원시키는 데 유익한 면이 있다. 어린이 부흥회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사들과 주일학생들은 전도 대상자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설교를 통해서 전도를 강조하고, 2달 전부터 교회와 부모들에게 광고하며, 전화심방은 2주전에 하며 참석자들에게 줄 선물과 상장을 준비한다. 특히 교사들의 기도와 헌신이 요구된다. 매일 저녁에 모여 기도하면서 어린양들의 구원을 위한 준비를 한다. 아울러 교회에 다니다가 지금은 다니지 아니하는 잃은 양(어린이)을 찾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

중고등부 자녀와 함께 하는 어머니 기도회는 말 그대로 자녀들과 함께 하는 어머니들의 기도회이다. 이를 통해 중고등부 학생들의 전도를 위해 열심을 다해 기도한다.

라. 봉사전도

경천 밥사랑 공동체에 의한 전도는 지역 봉사에 의한 결실이며 간접 전도이다. 경천교회는 교회 입당 후 8년 동안 계속 노인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꼭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는 하지 않지만 교회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섬기는 자들의 표정이나 진심어린 마음을 보고 교회에 오는 분들이 적지 않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교회로서 인정받는 일들이 많아 참으로 아름다운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구제를 통한 전도 또한 이웃을 구제함으로 결실을 얻는 간접 전도이다. 경천교회는 구제에 많은 재정을 사용한다. 지역사회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구제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며, 특히 2010년에는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그 후에도 1년 제정과 추수감사절 헌금의 많은 부분을 구제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어려운 개척교회 돕기, 지역사회 이웃돕기, 지역사회 노인 돕기, 소년소녀가장의 읍에서 명단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노인정 기름 넣어주기, 이불사서 드리기, 김치나누기, 중고등부 장학금, 노인무료급식 등 경천교회는 많은 일에 있어서 구제에 힘을 쏟고 있으며 교인들이 이런 행사들에 참여함으로써 감동과 감격을 받는다.

제 3 절 경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전략들

1. 시로 드리는 예배

이는 주일 저녁 찬양예배시에 제출한 시를 발표함으로써 시행하는 예배이다. 두 달 전부터 주보에 광고를 낸 후 담당부서에 자작시를 제출하고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예배시에 시인이 발표하게 된다. 본 경천교회는 야외에서 11월 추수감사절 행사로 드렸는데, 마당에는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고 친교를 위해 식사와 다과를 풍성히 준비해 놓는다. 한 사람 한 사람 시를 발표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감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사회자는 이 시를 쓴 배경과 의의를 질문하게 되며, 자신의 신앙고백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 아름다운 시로 드리는 예배는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기억에 남는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었다.

2. 중고등부 하계, 동계수련회

경천교회는 중고등부 하계수련회와 동계수련회를 갖는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신앙교육과 인격교육을 동시에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 수련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4에 게재되어 있다.

3. 중고등부 문학의 밤

경천교회 중고등부는 11월에 문학의 밤을 개최한다. 교사들의 도움이 있지만 비교적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준비하여 발표하는 행사이다. 친구들을 초청하여 전도하는 기회가 되며, 학생들의 믿음의 성장이 되는 좋은 기회이다. 이번 문학의 밤은 진집교회와 연합하여 행사를 주관했는데, 두 교회가 함께 모여 발표 하니만큼 인원도 많았고, 행사가 재미도 있었다. 특별히 행운권 추첨시간이 있었는데, 재정은 교인들의 후원으로 준비되었는데, 수제기타 2대, 파마 이용권 등 현금으로 환산하여 삼백 여 만 원 정도가 되어 참석한 학생들과 교인들의 기대를 모았다.

4.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는 어린이 행사 중 가장 큰 행사이며, 많은 어린이들을 전

도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행사이다. 교사들의 많은 기도와 준비가 필요한 행사니 만큼 조직을 만들어 실행함으로써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름성경학교 준비 기도회 및 교사강습회 순서는 다음과 같다.

여름성경학교 준비기도회 및 교사강습회 순서

(경천교회 초등부, 유년부, 진접교회 아동부)

1차) 16일-월요일

1. 기도회 / 이순복전도사님
2. 프로그램설명 / 이하은전도사님
3. 부서별 할 일 체크 / 이하은전도사님
4. 율동연습 / 이하은전도사님
5. 참석) 이하은전도사님, 이순복전도사님, 김봉한부장선생님, 이인자부장선생님, 우태범선생님, 이연숙선생, 홍선정선생, 김진선선생, 홍덕혜선생,

2차) 17일-화요일

1. 기도회 / 송일육복사님
2. 프로그램설명 / 송일육복사님
3. 코너별 준비물 체크 / 이하은전도사님
4. 율동연습 / 정영성선생님
5. 참석) 송일육 복사님, 이하은 전도사님, 이순복 전도사님, 서인숙 전도사님, 김순위 선생님, 김경화 선생님, 김리연 선생님, 이주은 선생님, 이연숙 선생님, 홍선정 선생님, 우태범 선생님, 이창환 선생님, 김선경 선생님, 정희정선생님, 정영성선생님, 강원영선생님, 김진선 선생님, 홍덕혜 선생님, 백지은 선생님, 김지혜 선생님

3차) 19일-목요일

1. 기도회 / 송일육복사
2. 프로그램설명 / 송일육복사
3. 코너별 최종 준비사항 발표 / 이하은전도사
4. 각 부서별 아이들 명단체크 / 학년별교사
5. 예상 전도자 체크 / 학년별교사

6. 율동연습 / 정영성선생

7. 참석) 송일육 목사님, 이하은 전도사님, 이순복 전도사님, 서인숙 전도사님, 김봉한
부장선생님, 김순임 선생님, 김리연 선생님, 이주은 선생님, 이연숙 선생님, 홍선정
선생님, 우태범 선생님, 이창환 선생님, 김선경 선생님, 정희정 선생님, 정영성 선
생님, 강원영 선생님, 김진선 선생님, 홍덕해 선생님, 백지은 선생님, 김지혜 선생님

8. 아이스크림 후원 - 후원집사님

4차) 20일-금요일

1. 기도회 / 송일육목사님

2. 프로그램설명 / 이하은전도사님

3. 율동연습 / 정영성선생님

4. 서기부 할 일, 준비물 체크 / 이하은전도사님

5. 참석) 송일육 목사님, 이하은 전도사님, 이순복 전도사님, 서인숙 전도사님, 김봉한
부장선생님, 김순임 선생님, 김리연 선생님, 이주은 선생님, 이연숙 선생님, 홍선정
선생님, 우태범 선생님, 이창환 선생님, 김선경 선생님, 정희정 선생님, 정영성 선
생님, 강원영 선생님, 김진선 선생님, 백지은선생님, 김지혜 선생님

5차) 21일-토요일

1. 기도회 / 송일육목사님

2. 프로그램설명 / 송일육목사님

3. 전체 코너 최종리허설 / 송일육목사님

4. 율동연습 / 정영성선생님

5. 인솔자교육 / 서인숙전도사님

6. 특별 노방전도 / 송일육목사님

7. 참석) 송일육 목사님, 이하은 전도사님, 이순복 전도사님, 서인숙 전도사님, 김순임
선생님, 김리연 선생님, 이주은 선생님, 이연숙 선생님, 홍선정 선생님, 우태범 선
생님, 이창환 선생님, 김선경 선생님, 정희정 선생님, 정영성 선생님, 김진선 선생님,
백지은 선생님, 김지혜 선생님, 김진영 선생님, 양윤정 선생님

전도계획) 양지초, 양오초 학교 앞 노방전도

월요일 12시30분 각 교회에서 모여서 출발 / 이하은 전도사님, 이순복 전도사님

화요일 11시

서기부 모임계획) 월요일 10시 / 이하은 전도사님

(코너간판 만들기, 환경미화 재료구입), 목요일 (최종환, 경미화-풍선)

환경미화계획) 수요일9시 / 송일육 목사님

목요일8시(전체교사모임) / 이순복 전도사님, 각부서 부장선생님

5. 헌신 예배

헌신예배는 제직헌신예배, 남선교회, 여전도회 헌신예배, 청년헌신예배, 사명자헌신예배가 있다. 헌신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신앙의 점검과 봉사를 점검하게 된다. 강사는 외부에서 초청되며, 예배인도와 기도, 성경봉독, 특송, 헌금기도 등은 성도들이 주관한다. 기간은 한 달에 한번은 헌신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각 부서의 헌신을 점검한다.

6. 봄 부흥회, 가을 심령대 부흥회

경천교회는 1년에 2회씩 부흥회를 개최한다. 성도들의 신앙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시행되는 부흥회는 믿음의 성장과 활기차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

7. 부활절, 추수감사절 찬양대회

추수감사절은 1년간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저녁예배는 각부서 및 남선교회 여전도회 찬양대회를 시행한다. 사회는 예배부장이 하며 모든 부서가 참여한다. 상장을 교회에서 준비하며 상품은 각부서 및 후원자의 후원으로 준비된다. 감출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행사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큰 일조를 감당한다.

8. 교인가족 사진 찍어 드리기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일수록 가족사진이 없는 경향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가족사진을 찍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사진을 인화하고 사진액자에 넣어 선물하는 행사이다. 주일 2부 예배 후 온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교회로부터 선물로 받을 때 그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대심방을 가거나 유고 심방을 갔을 때 모든 가정들이 전체 가족 사진을 잘 보이는 곳에 두어 자랑스럽게 이야기 했으며, 이런 행사를 통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나와 사진을 찍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가까워져서 전도되어 세례교인이 되는 예도 적지 않다. 사진은 전문가가 좋은 카메라로 찍느니만큼 교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었다.

9. 노인 영정사진 찍어 드리기

아울러 무료 노인급식에 오시는 분들은 연세가 대부분 65세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정사진 한 장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교회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영정사진을 한 장씩 찍어 선물하였다. 노인들은 대체적으로 잘 웃지 않는다. 가능한 영정 사진을 웃는 사진으로 유도하며 찍어드린다. 웃는 얼굴의 자기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지금도 그 감동이 생생하다. 사진을 받고 온 집안의 가족들이 기뻐하며 온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일도 있다.

10. 남선교회 부부초청 만찬

경천교회는 언제나 선 교적으로 개척을 준비하는 교회이다. 세 번째로 개척한 진접교회 남선교회가 경천교회 남선교회 부부를 초청하여 기도하고 만찬을 하는 행사인데, 주님의 일에 충성하다보니 부부간에 외식도 제대로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부와 모든 자녀들을 초청해서 식당에서 교제를 하는 것이다.

지난 2014년 11월에는 경천교회가 진접교회 남선교회 부부와 자녀들을 초청해서 교회마당에 불을 지피고 고기를 굽고 식사를 준비해서 행복한 만찬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정말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특히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부모들의 마음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을 아이들도 만끽하였다. 2015년 1월에 두 번째로 시행한 이번 행사 역시 행복한 시간이었으며, 주의 일에 헌신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데 좋은 행사이다.

11. 중고등부 성경통독

중고등부 성경통독은 이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5박 6일 동안 숙식을 하면서 교회에서 시행한다. 학생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도 성경을 통독하고 나면 은혜 스리워하고 믿음의 학생들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헌신적인 교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어른들도 이러한 기회가 있으며 좋을 듯 하다.

12. 김치 나누기

경천교회는 한 달에 100kg씩 김치를 읍사무소에서 명단을 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들이 있었다. 이는 헌신적으로 후원하는 교회의 이두희장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장로는 김치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교회에 신앙과 봉사의 모범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까지 큰 일을 감당했다. 김치나누기는 지역사회와 연약한 자들의 힘이 되는 행사이다. 이 김치나누기를 하는데는 많은 일꾼이 필요하지만 경천교회 여전도회는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였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도 경천교회의 위상이 상승했으며 경천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좋은 교회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13. 구제 돼지저금통 이웃돕기

경천교회는 가정마다 자녀들 이름으로 구제 돼지저금통을 연초에 나누어준다. 1년 동안 잔돈을 모아 전액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돼지저금통을 현금하는 날짜는 12월 25일 성탄절이며 모든 현금은 가난한 자들과 노인 무료급식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 또한 상당한 진도의 효과가 있다.

14. 경천 밥사랑 공동체(노인무료급식)

매주 목요일 오전11시 30분에 노인 무료 급식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경천교회는 항상 어려운 소외층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봉사자들은 25명 정도 된다. 교인중심이지만 타 교회 교인이나 타종교 사람들도 함께 봉사하고 있다.

식사하러 오시는 노인들 중에는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시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다. 지체 장애인도 많다. 평균적으로 130여명, 많이 참석 하실 때는 180명 정도이다. 아름다운 봉사활동이야 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눔 사랑이라고 믿는다. 봉사는 헌신이요 희생이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이다.¹⁴⁵⁾

15. 노인 무료 미용봉사

교회에 불신자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교회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이며 현실성이 없고 종교적이며 돈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활동을 통해서 섬김으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경천교회는 노인 무료 미용봉사를 통해서 지역의 노인들을 섬긴다. 한 교인의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8년 입당 후 8년동안 매월 넷째 주 목요일 교회에서 10명-20명 정도를 펴머를 해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 이는 실로 복음을 위한 헌신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16. 사랑의 선물 나누기

이 행사는 교회에서 사랑의 온도계를 설치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헌금과 후원을 하게 함으로써 가난한 자들과 노인들에게 진액 사용된다. 올해 역시 100퍼센트 달성하였는데, 올해는 추운 겨울에 떨고 있는 노인들에게 40개의 이불을 증정하였다. 방법은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임원이 직접 집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이불을 선물로 주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선물을 준비해야 하겠다고 말하는 위원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17. 아파트 및 이웃 경로당 기름 넣이 주기

이 행사는 겨울에 이웃 경로당에 기름을 넣어주는 행사이다. 오갈데 없는 노인들은 노인정에서 하루를 보내는데 겨울에는 기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13개 노인정에 기름을 넣어주어 따뜻한 겨울을 지내시도록 하는 것이다.

145) 경천 밥사랑공동체-노인무료급식 포스터는 부록 5를 참조.

18. 부활절 개란 나누기

부활절 개란 나누기는 1,000개-1,200개 정도 개란으로 관공소나 이웃 상점과 아파트에 나누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교인들로 하여금 부활절의 의미를 알며 또한 그 의미를 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9. 각 부서별 기도회

경천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다. 기도는 본 교회의 기적의 원동력이었다. 각 부서별 기도회는 한 주간 동안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남선교회, 여전도회, 구역별, 교사 기도회, 권사기도회, 남선교회 기도회 등 모든 부서가 시간을 정하고 기도회를 갖는 것이다. 이는 자치적으로 하는 기도회이며 인도자가 부재중일 때에는 장로나 안수집사를 초대해서 인도를 부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헌신의 시간이기도 하다. 장소는 교회이며 각부서에서 기도한 후 다과로 교제하기도 한다.

20. 새 신자 환영회

새 신자 환영회는 1년에 2회 실시한다. 전반기나 후반기에 등록하신 새 신자들을 중심으로 교회의 중직이나 사명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육하고 친교하는 시간이다. 특별히 새 신자 각자가 발표를 하는 순서가 있는데, 교회에 등록한 배경이나 교회의 분위기 어느 분 때문에 교회가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할 때면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기도 한다. 새 신자 환영회에 참석하실 수 있는 새 신자들은 새 신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며 새 신자 교육은 새 신자가 꼭 수료해야 하는 과정이다. 준비사항은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준비하며, 사회는 목회자가 하고, 말씀과 교제로 교인들이 서로 하나 되고,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사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1. 갯세마네 저녁 기도회

갯세마네 저녁 기도회는 경천교회와 진접교회가 연합으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송일육 목사의 인도로 진접교회에서 시행된다. 30-35명의 성도

들이 모여 성령충만하여 기도한다.

헨리 블랙커비(Henry Blackaby)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분은 우리가 몇 년을 노력해서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며칠 또는 몇주 안에 하실 것이라”¹⁴⁶⁾고 말했다. 새벽에는 새벽기도회로 저녁에는 갯세마네 저녁 기도회로 매일 기도하는 교회, 매일 기도하는 성도의 본분을 지켜가고 있는데 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다.

22. 토요일 사명자 기도회

경천교회는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사명자 기도회가 있다. 개척후 지금까지 지켜온 기도회인데,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각부서 부장과 부감, 구역장, 여전도회 회장, 남선교회 회장 등 교회의 중요 사명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회이다. 뜨겁게 기도하며 한 주간 성도들의 유고사항을 체크하고, 주일을 기록하게 준비하는 기도회이다. 교회가 기도회를 많이 가질 때에 성도들의 성령의 충만함은 더해 갈 것이다.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기도회이다.

제 4 절 경천교회가 세운 개척교회

경천교회는 100개의 교회를 개척함을 목표로 하고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임을 알고 이는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선교임을 인식한다. 경천교회 개척 이후 두 번째 교회는 미안마교회이다. 세 번째 교회개척은 진집교회이다. 네 번째는 2015년 4월에 개척할 예정이다.

세 번째 교회인 진집교회는 담임목사가 여자이다.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송일육 목사이며, 경천교회에서 파송하여 현재 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다. 개척하는 교회는 경천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감당하였던 사역자들로 파송되어 개교회의 목회자가 된다. 행사와 재정 및 모든 교인이 분리되어 있는 단독 교회이며 협력교회이다.

146) Henry T. Blackaby, Claude V. King,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길*, 문정민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241

한국교회는 여자 목회자들에 대한 적지 않은 편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안수하셨다는 이 영적인 사명에 누구도 부정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척 5년 현재 주일예배의 참석인원은 장년50여명, 주일학생 30여명, 중고등부 15명, 청년 9명 정도 모이고 있다.

제 5 절 경천교회의 교회 건축

교회 건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으랴 이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목회자 혼자 지을 수도 없고 반드시 교인과 누군가의 협력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교회건축인 것이다.

1999년 12월 경천교회는 담임목사의 가정에서 개척되었다. 그 당시에는 재정이 전혀 없었고, 전세 인을 힘도 없었다. 목회자가 빚을 내서 아파트 전세를 얻어 교회가 개척되었다. 자녀는 딸 둘과 아들 하나 모두 셋이다.

경천교회의 개척은 그야말로 아무 것도 없는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한 기적이었다. 개척 멤버는 본 연구자와 아내 딸 둘과 아들이었다. 집에서 개척 되었고, 개척예배를 드릴 때는 처음 8명이 시작되었다.

2,300만원 전세아파트에서 개척된 교회는 예배와 교육이 진행되었고, 세례도 성찬식도 거행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전도되고 33명이 예배드리게 되었다. 급기야 10개월 만에 교회를 전세 건물로 이전하게 되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며 감동과 감격이 아닐 수 없었다.

교회가 개척된 지 3년 만에 교회당 부지 310평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교육과 연단을 반복하면서 5년 만에 건축을 시작하였고, 개척한지 8년 6개월 만에 교회건축 시작 후 2년6개월 만에 입당하게 되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이제야 고백한다. 교회 부지를 매입하고 3년 동안 교회당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짓지 못했다. 그때 장손인 아들이 회귀암에 걸려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암담한 속에서 치료를 시작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교회를 지을 수 없는 이 자리에 교회를 짓겠습니다. 이 교회에

입당할 때 우리 아들의 병도 치료 가운데 종결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밖에는 생각나는 것이 없다.

교회를 건축할 때는 재정이 아무 것도 없었고, 교회 부지 매입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기에 정신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나 해결해 주실 것으로 시작했다가 적지 않은 어려움과 실패를 당한 적이 많다. 물질의 준비 없이 큰일을 이루는 기적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건축비의 70-80퍼센트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건축을 하는 것이 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구약성경 학개서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는 말씀에 대한 확신과 순종의 마음으로 교회 짓는 일을 계속했다.

교회는 2년 반 동안 지어지게 되어 많은 은혜와 또한 고난을 거듭했다. 서울대병원에서의 살고 죽는 것을 반복하는 아들 치료는 송일욱 목사(아내)가 전담하고, 본 연구자는 기도원을 진진하면서 금식기도하며 교회를 지었다. 정말이지 아들의 암치료 때는 지금 생각해도 간담이 서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2년 반 동안 전국 교회들과 믿음의 지인들, 미국 장로교회와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전국 남선교회 회원들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사회부 등등 많은 기관들과 또한 이병현안수집사의 감독과 김복지 집사 설계의 헌신적인 충성과 헌금으로 그리고 우리 경천교회의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성도들이 헌금하여 300여 평의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¹⁴⁷⁾

드디어 2008년 6월 입당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드렸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은혜로 아들을 낫게 해 주셨다. 그분이 배푸시는 은혜에 그저 감사드릴 뿐이다. 지금 그 아들은 건강하게 고등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 앞으로 목사가 되어 병들고 힘들어하는 아이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을 하였다.

이렇게 교회당을 건축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금하고, 함께 어려움을 겪고, 함께 즐거워하고,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147) 경천교회 사진은 부록 6에 수록되어 있다.

기도와 사랑을 함께 드렸던 성도들, 그 성도들이 지금의 경천교회 성도들이다. 이들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한 사람들임을 확신한다. 그래서 본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 자기 자신을 드러서 교회를 짓고 기도했던 성도들이기 때문이다.

그 후 많은 성도들이 등록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건강한 교회 젊은 교회로 인식되어 비교적 젊은 부부들이 많은 것이 교회의 특징이다. 그래서 교육부서도 다른 어느 교회보다 활성화 되어있다.

또한 경천교회의 개척과 오늘날의 성장에는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꾼이 있다. 그 일꾼은 본 연구자의 아내인 송일육이다. 목사인 송일육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산하 서울 동노회에서 1997년 안수를 받았다. 전국 여전도회연합회에서 10년을 사역하며 상임총무로 일했다. 아들의 암 치료 때문에 부득불 사임했고 경천교회 개척에 함께 한 동역자이다. 지금은 경천교회에서 개척한 진접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경천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송일육은 본 연구자와 함께 목회하고, 함께 설교하고, 함께 심방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안수하고 함께 축도했다. 2대 부부목사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경천교회는 이러한 개척과 성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건축 대지를 구입하고 교회를 짓기 시작했다. 좋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모든 목회자와 성도의 바람이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 건축은 어렵다. 좋은 설계도를 가지는 것도 어렵고 좋은 건축가와 감독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다. 또한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건축 양식에 대한 요구도 다르다. 개 교회의 특성과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을 살린 교회 건축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경천교회의 건축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둘째는 좋은 감독을 만나게 하였고, 셋째는 좋은 설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이다.

경천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이병현 감독은 실력자이며 믿음의 사람이었다. 또한 목회자를 잘 알고 섬기는 충직스러운 감독이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지역사회의 사람들과 목회자의 관계를 고려할 정도로 영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현대건설에서 25년 동안 아파트 감독을 한 사람이고 선교적 목적으로 대학과 선교센터를 감독한 사람이

다. 경천교회를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동안 일찍이 15년 전에 알게 하셨던 은혜로 설계를 도와주려나 감독을 하게 되었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회를 건축하는 2년 반 동안 최선을 다해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감독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경천교회 교회건축 당시 전혀 건축비가 없었는데, 이분을 통해 최소한의 건축비로 아름다운 자연과 지역에 아름답게 어울리는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다.

경천교회는 교회의 역사, 현황, 선호도 그리고 비전을 설명하고 가능한한 교회가 지향하는 많은 가치와 희망 사항들을 비록 두서가 없더라도 말씀을 드렸다. 교회마다 필요하게 되는 실과 각 실의 면적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교회는 본당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나 다른 교회는 교육관과 식당을 더 넓게 필요로 할지 모른다. 가급적 경험에서 오는 세밀한 데이터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건축가 이은식은 재정분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의 건축을 자주 믿음만으로 시작하곤 한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용기도 계획과 예산을 알고서 발휘하여야 하는 일이다. 망대를 짓는 사람이 어찌 그 소용되는 물량을 따져보지 않고 짓겠는가 만약 정확한 예산을 가지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이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재정을 낭비하고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재정이 모자라서 당황해 할 수 있다. 비록 기대치보다 조금 작고 김소하더라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규모나 수준을 잘 정하고 시작하여 조화롭게 완성된 교회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 그리고 가능한 한 대략 70퍼센트 이상의 건축비가 마련된 후에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⁴⁸⁾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재정은 참으로 중요하다. 교회를 짓다가 중지하고 마무리를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다. 반드시 건축 비용을 설정하고 70퍼센트 정도는 준비한 상태에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각 교회 건축은 그 교회와 맞게 설계되고 건축되어야 한다. 여행중에 이디서 본 듯한 좋은 교회를 본떠서 짓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교회 대지의 자연과 지역에 맞게 현실에 맞게 지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당을 흉내 내어 지으려고 한다면 그 교회의 건축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주변이 도시냐 시골이냐가 다르고, 대 교회의

148) 이은식, *새로운 교회 건축, 이렇게 하라*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1), 19.

프로그램과 소규모 교회의 기능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단기 여행자와 실제 주거자의 시각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건축은 아주 복잡적이며,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 아주 역동적인 작업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¹⁴⁹⁾

1. 교회 건축부지 구입

교회 건축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결과이다. 교회가 부흥되어 성도들에 의해 새로운 교회를 건축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게 된다. 첫 번째는 교회 건축부지 구입이다. 경천교회는 남양주시 오남읍에 위치하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건축하지 않고서는 안 되었기에 건축하게 되었다. 문제는 멀리 가지 말자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부근에 교회부지를 찾고 기도하였다. 본 연구자는 매년 초 1일부터 3일까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기간이 있다. 교회부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 기도원으로 작정하여 기도하러 가는 도중 어느 지점을 지나가면서 현재 교회 건축을 한 부지가 구름사이로 비춰진 햇빛이 어느 땅을 비추고 있었다. 우리 부부는 '바로 저기다'라고 소리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감사를 했다. 그 후 기도원을 내려 와서 2006년 1월 4일 그 땅을 계약하게 되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더라면, 두 땅이 개발되어 지역의 지가가 너무 높아져서 교회를 건축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교회를 건축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교회 건축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다수의 교인들이 협력하고 협조해 주어서 건축할 수 있었다. 건축을 하는 이러한 큰일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복회자가 너무 주도적으로 하면 교인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고, 교인들에게 주도권을 너무 많이 주면 부담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강준민은 결국 건물을 얻을 것이냐 사람을 얻을 것이냐라는 말을 하였다.¹⁵⁰⁾ 중요한 것은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으며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모두가 중요하며 사람도 얻고 건축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149) 이은석, *새로운 교회 건축, 이렇게 하라*, 19.

150) 강준민, *뿌리 깊은 영성으로 세워지는 교회*, (서울: 두란노, 1999), 133.

2. 설계와 인테리어

본 연구자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얻은 지식이 있다. 분명 교회는 하나님의 몸 된 성전이다. 그러나 설계와 짓는 사람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더욱 더 설계와 인테리어에 노력하고 연구해야 하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건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쓰기에 편한가? 편리함과 약간 다른 면이 있다. 편리함이 편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화장실이 가까이 있으면 편리한 면이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쾌적하고 편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모든 집은 그 기능에 따라 편리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편안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진정한 의미의 편안함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교회 건축에서의 실용성은 편리함을 넘어선 편안함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둘째는 보기에 좋은가? 화려함이나 사치와는 약간 다르다. 교회당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결코 화려함이나 사치스러움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교회다운 미적 풍취는 건축물 전반에서 나름대로 드러나야 할 필요가 있다. 보기에 좋지 않은 건물은 건축물의 가장 우선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건물 속에서 사는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교회 건물, 보기에 좋은 교회당은 신자의 삶을 담는 아름다운 그릇이 된다.

셋째는 주위와 조화로운가? 평범함은 분명 아니다. 교회가 너무 외형적 빼어남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오히려 역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교회당은 주변의 도시에서 가로와 이웃한 건물에 조화롭게 녹아 들어가 있어야 한다.

넷째는 인간을 환대하고 있는가? 상업적 유치함과는 다르다. 교회는 그 어떤 기능을 가진 건물보다도 인간을 위하고 이웃을 환대하는 분위기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낮은 담과 열린 대문, 넓고 밝은 홀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회당은 부드러운 환대, 자연스러운 안내, 편안한 방문이 가능한 참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다섯째는 경건한 내 외부 공간을 갖는가? 구태 의연한 상징적 형태와는 거리가 있다. 아무리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우선 된다 하더라도 교회는 경건한 내 외부 공간과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경건한 시간과 공간을 획득할 수 있게 매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경건함은 공간이나 분위기의 문제이지, 인위적인 건축 형식이나, 장식물, 성화나 조작된 가구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섯째는 관리하기에 좋은가? 폐쇄성과는 다른 융통성 있는 관리를 말한다. 열려져 있는 공간일수록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일수록, 그 관리의 방식은 용이하고 명쾌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 항상 개방이 가능한 공간의 지혜로운 구성과 배치는 언제나 절실한 것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내가 다니는 교회로서 자부심을 줄 수 있는가? 풍요로운 건축 공간과 수준있는 건설의 과정 모두가 포함된다. 신앙인은 물론 믿지 않는 친지들이나 이웃에게까지 방분해 보라고 권할 수 있을만큼 자부심을 주는 교회인가를 따져 보면 이는 반드시 완성된 물리적 교회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지어지기까지의 순조롭고 은혜로운 기획과 설계 그리고 신실한 시공과정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당이 많이 세워질수록 한국교회는 전체로서 성숙되어 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⁵¹⁾

경천교회는 자연과 잘 어울리는 교회이며 편안하고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주위와 잘 조화되며, 인간을 환대하고 공간이 경건성이 있으며 내가 다니는 교회로서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교회라 확신한다. 실제적으로 교회가 처음 오는 분들로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을 때마다 감사한다.

3. 방송 음향

교회의 음향은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음향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설교의 전달매개체이기 때문이다.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음향을 고려해야 하는데 음향공학까지 고려한 건축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개의 교회는 형태와 규모, 내부구조, 내부 마감재 등이 매우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불행하게도 건축음향과 전기음향을 고려해 설계된 예는 거의 없고, 상당부분 비용이 들었지만 음향적으로 초악의 구조, 내부 마감재(대리석, 유리)를 선정할 예도 있다. 이는 음의 사각지대가 많고 덜레이 현상이 발생되고, 높은 천정과 전면과 벽면을 식조제로 마감되어 에코가 발생하는 등 흡음처리가 전무할 수 있다. 이는 음압이 높은 고출력 스피커나 이퀄라이저를 쓴다고 해도 건축설계와 인테리어 설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교정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복희자는 방송 음향을 아는데 한계가 있다고

151) 이은석, *새로운 교회 건축, 이렇게 하라*, 24-25.

생각해서 믿음 좋은 전문가가 교회의 음향을 기도로 준비하고 전문가에 설치를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일이라 생각했다.

경천교회 음향은 30여년을 넘게 함께 기도하며 교제해 오던 윤형태 집사가 맡았다. 윤 집사는 부친에 있는 참된교회 안수집사이며 용산에서 월드음향을 경영하는 사장이다. 한국의 많은 교회의 음향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의 실력이 있다. 목회자와 서로 신뢰하며 믿고 음향을 맡겼다. 경천교회의 음향은 본 연구지를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헌금으로 설치가 되었으며, 조명 또한 세바 건설주식회사 대표인 이병현 집사의 헌신으로 설치가 되었다.

4. 교회 주차장

현대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차장이다. 성도들의 삶의 상승으로 자동차 문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경천교회는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가까운 중학교를 빌려 주차하고 있는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주차하고 예배에 참석하기가 불편하다. 혹시나 주차장을 미비한 교회는 관공소나 학교를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경천교회를 신축할 때 주차장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 당시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고로 주차장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니 정말 주차장 시설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경천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지금도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회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많은 영혼들에게 용기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있다.

지금까지 경천교회 개척의 실제적인 과정을 다루어 보았다. 교회 개척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피력하였고 복회자의 소명과 예배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임을 밝혔다. 또한 경천교회 개척 과정과 교회의 부흥과 전도를 위한 행사들을 기록하였으며, 경천교회 교회 건축에 대한 의견과 실재를 피력하였다. 경천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로 일꾼을 세우는 교회이다. 목회자가 인도하는 성경공부를 통해서 영육간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 기대하고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라 자부한다. 성도들이 기뻐하며 신앙

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세대에 비전과 희망을 주는 축복의 교회이다.

제 6 절 경진교회의 미래 목회 사역

1. 가정교회로 변화되는 목회사역

한국교회는 세계 50위 안에 드는 교회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이지만, 21세기에 들어선 한국 교회가 표류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한다.¹⁵²⁾ 교회가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경영철학을 여과 없이 그대로 도입하여 성장이나 부흥이라는 미명 아래 수단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교회 안팎에서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우후죽순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 결과, 교회는 사회로부터 공신력을 잃고 내적으로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¹⁵³⁾ 1960년대 이후 급성장하던 한국 교회가 1990년대에 와서는 그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더니 근래에 들어서는 두드러지게 한국 교회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배움과 고제, 기도, 경건, 섬김, 나눔, 예배, 기쁨, 진도 그리고 모범됨을 그 특징적 요소로 견비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공통된 믿음으로 그의 몸이니 서로 결속되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믿음, 사랑, 기쁨이 충만하여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작은 교회로서 성장해야 하고 대형 교회로서 성장시켜야 한다.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에 대한 정답은 없다. 그러나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목회자들이 있기에 그 가능성을 기대해 본다. 목회자의 리더십과 가치관은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핵심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는 분명히 위기를 맞고 있으며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를 지향하기 위한 근본적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¹⁵⁴⁾ 한국 교회가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에게 참 소망과 참 생명을 주어야 한다. 그 동안 교회의 모든 활동과 집회는 양적인 성장에 가치를 두고 몸집 늘리기에 열중했다. 내적으로 성장하지

152)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도서출판 국제제다훈련원, 2012), 13.

153) Ibid., 14.

154) Ibid., 19.

못하고 성도 수를 늘리는 일에만 몰두해 온 것이 오늘날 교회의 자화상이며 성장주의에 빠진 물질 민중주의와 세속적인 대중문화가 유입되면서 교회가 성숙과 성장을 방해 받은 것이 아닌가 싶고 소그룹이 또 다른 대안일 수 있다.

앞으로의 경천교회의 미래 목회사역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가정교회를 대안으로 할 것이다. 전통적인 목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갈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시대는 목회자 혼자 목회하는 시대는 지났다.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에 우리는 처해 있다. 둘째, 현대인들은 고독하기 때문이다. 현대인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표류하며 방황하고 있다.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성도 개개인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한 채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닌다. '어느 교회의 성도'라는 저급한 수준의 자존심을 갖고 살 뿐이다. 가정교회의 소그룹 모임은 현대인의 이러한 외로움과 소외감을 채워주며 영적인 치유를 받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 목회의 한계와 단점들을 극복할 만큼 가장 좋은 분위기, 혹은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가정교회는 성공적인 목회 방법의 한 종류나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가 시행해야 할 필수사항인 것이다.

2. 가정 회복을 위한 목회사역

가정이 온 가족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대화로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의 모본인 것이다.¹⁵⁵⁾ 경천교회가 세워진 지역의 상황은 많은 가정들이 가정 해체의 위기 속에 놓여 있다. 한부모 자녀들이 많은 지역이다. 급변하고 있는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전세나 월세의 상승으로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그 결과 가족간의 사랑은 깨어지고 남편과 아내의 불화와 부모 자식간의 대화단절은 치유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교회는 가정을 회복하며, 부부관계 회복, 부모 자녀관계를 회복하고 치유해야 한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치유해야 한다. 히브리서 11 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소망은 믿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특별히 소망은 영생과 관련되는 것이

155) Gene A. Getz, *가정은 작은 교회며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서울: 만나출판사, 1992), 29

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성경적인 확신을 말한다. 따라서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가족들이 영생에 대한 믿음, 구원에 관한 확신을 어느 정도 분명하게 보여 주는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여 주신 모습과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곧 교회와 가정을 치유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특히 사랑은 가정을 하나 되게 하며 가정으로 하여금 지역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행사로는 부부세미나와 부부예배 참석하기, 부부등산대회, 부부섬기는 주일 등을 실천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언제나 행복한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될 것이다.

3. 평신도 지도자 육성 및 목회사역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그 커다란 외침과 화답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평신도 사역자들이라는 자원을 땅에 묻어두는 무익한 종이 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제 21세기 교회는 평신도 지도자 육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잡자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깨워야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남겨야 할 수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잠자고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¹⁵⁶⁾ 경천교회는 개척 때부터 목회자 중심으로 사역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사역자가 리더하고 모범되는 교회가 되도록 할 것이다. 이것 또한 평신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평신도란 교회의 주체로서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절대 다수의 교회 구성원들이다. 그러므로 교회 구성원의 절대 다수이며 주체 세력인 평신도의 비중과 역할은 교회 성장에 있어서 실로 중요하며 필요하다.¹⁵⁷⁾ 개척 후 16년 동안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평신도가 침체되어 있으며 교회도 침체되어 간다는 것이다. 평신도들이 활성화되면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평신도들이 침체상태가 되면 성장이 멈추게 된다. 따라서 평신도들의 훈련과 사역 여부에 따라서 교회성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156) 김남용, *역동적인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라*, (서울: 도서출판 멘토, 2002), 3-4.

157) Ibid., 250.

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고 또한 성장하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이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충성 봉사해야 한다.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잠겨진 일꾼들 즉 평신도의 개발과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갱신이며, 초대 교회로 돌아가는 교회 본래의 모습일 것이다.

경천교회는 평신도보다는 목회자 한 사람의 헌신과 사역으로 이어온 교회라 할 수 있다. 미래 목회는 목회자 혼자서만의 관리 능력과 리더십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새롭게 역동적인 목회 원리에 따른 목회 구조와 전략으로 평신도 지도자의 개발과 훈련 그리고 사역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4. 지역봉사(경천밥사랑공동체)의 활성화 사역

경천교회는 이웃을 섬기는 교회이다. 지난 8년 동안 매주 목요일 11시 30분 20여 명의 봉사자들이 120여분의 노인들을 점심으로 섬기는 교회이다.

이 지역은 서울 외곽지역으로 비교적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한 부모가 많고 이혼 가정이 많은 편이다. 또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외롭게 식사를 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경천교회는 노인이나 한 부모 학생들, 다시 말하면, 점심이나 저녁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따뜻한 식사 한 끼로 섬기고 싶다. 현재는 많이 오면 180여명 오지만 교통과 활동성이 좋은 곳에 1000여 평의 땅을 대어해서 하루 500여명을 섬기고 싶다. 이것이 이 시대에 경천교회에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리라 믿는다.

5. 중고등학교 설립 사역

이 지역은 보편적으로 불교지역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회자 자녀가 불교학교에 다니는 일도 다반사였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세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어렸을 때의 교육이 평생을 좌우할 때가 많기 때문이며, 어렸을 때의 비전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6. 문화 목회사역

경천교회가 섬기는 지역은 문화 목회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극장이나 뮤지컬 센터나 음악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다. 진접지역이 개발되면서 한 군데의 극장이 있을 뿐이다. 청소년들이 방과 후 취미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경천교회가 지역과 지역민들을 위해 할 일들이 더욱 많은 것이다.

건축되어진 경천교회는 영화와 뮤지컬, 세미나, 젊은 임마들의 문화사역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개척 후 16년이 되다보니 인적 자원도 충분하다. 악기레슨, 꽃꽂이, 케이크 만들기, 방과 후 학생들 자율공부 등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그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경천교회는 이로 인해 복음증거의 활성화 발판이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보다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제 6 장

결 론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부흥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또한 민족의 어려운 시기에 민족 복음화를 이룬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한국 교회가 추구해야 할 길은 건강한 교회성장이다. 건강한 교회는 성장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영혼구원을 목적으로 삼는다. 교회가 크게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성장이라고 본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영혼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¹⁵⁸⁾

경천교회가 이만큼 성장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울러 교회는 목회자로부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충성되게 여겨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라고 자부한다. 본 논문을 통해서 농촌과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교회들이 계속 확장되고 성장해 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본 논문은 총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는데, 1장은 본 논문의 서론으로 연구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연구 범위와 방법을 언급하였다.

2장에서는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를 연구하면서 교회의 정의와 특성, 본질을 말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예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제자를 만드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임을 말하며 남양주시 지역에 건강한 교회를 세울 연구를 진행하였다.

158) 안승오,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한 핵심 원리 7가지*, 6-7.

3장에서는 교회 개척의 이론적 근거를 연구하면서 교회의 정의와 실제적인 교회 개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였고 오늘날 교회 개척이 가진 현실적 한계와 어려움의 실제적 분체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또한 교회개척의 준비기로부터 지역선정, 기초멤버, 재정마련 등 교회 개척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연구했으며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4장은 남양주시의 지역연구 및 선정이유를 연구하며 남양주 지역의 지역적 배경과 자연환경 등 남양주 지역의 특성과 남양주시를 교회 개척지로 선정한 이유를 연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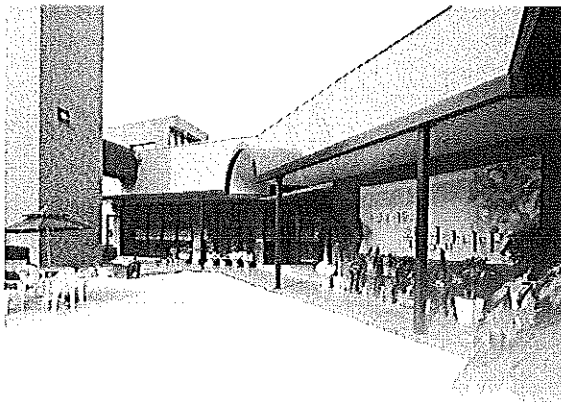
5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쉼기고 있는 경천교회를 중심으로, 남양주 지역에서의 교회 개척의 구체적인 실재를 다루었으며, 경천교회의 개척에 대한 과정 및 성장 방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농촌과 신도시에서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행사들을 연구했다. 개척할 때의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도 다루었다. 교회 개척과 교회건축을 다루면서 건축시의 어려움과 영광을 연구하였다.

6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건강한 교회의 필요와 이 필요를 채울 건강한 교회가 계속적으로 세워질 것을 피력하며, 지금까지 논의하였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뜻이다. 건강한 교회는 문화적 변화의 새로운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가 아닌가 싶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 원래의 교회로 돌아가는 것, 처음의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살아있는 교회로,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를 소망하며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개척교회의 모든 동역자들에게 비력하나마 본 논문이 작은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본 연구를 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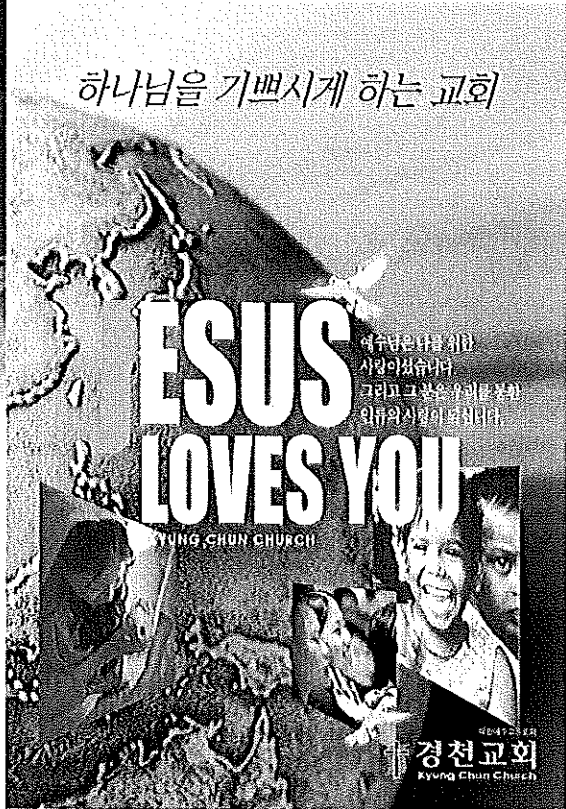
부록 1

전도지 사진



(주) 472-850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임지리 140-1번지 / 교회 031-873-4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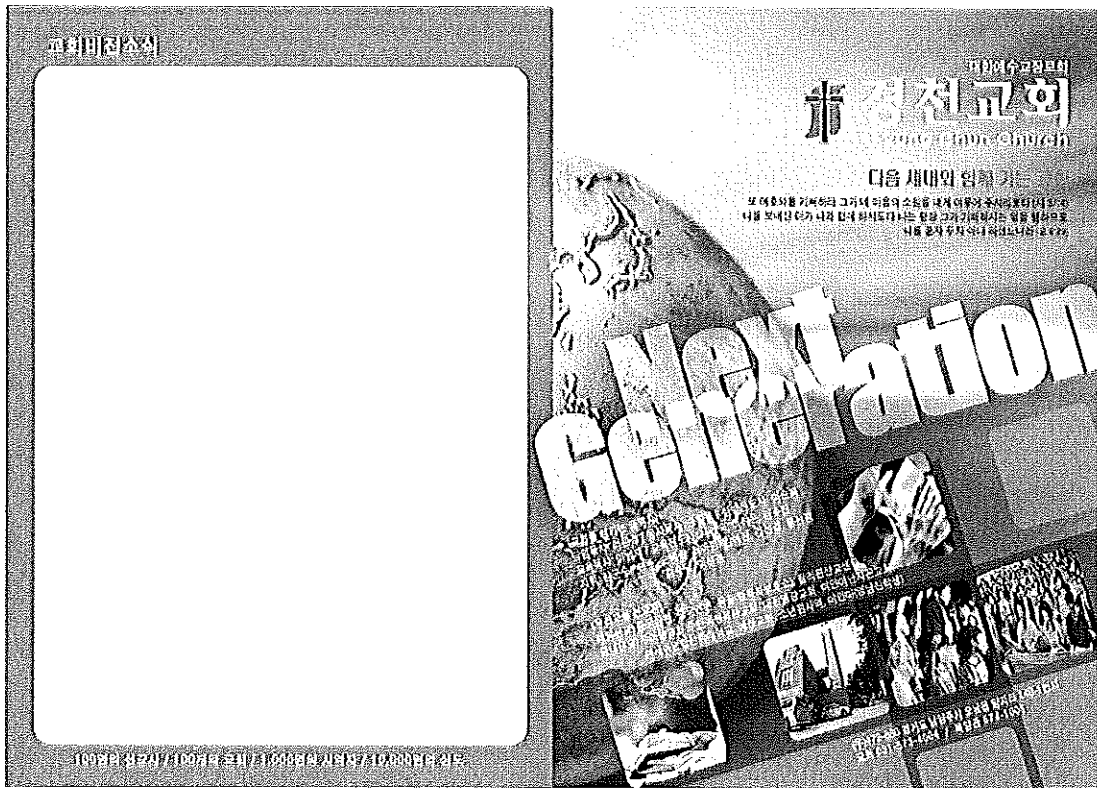
성도회	031-873-4001	성서	031-873-4001
주일학교	031-873-4001	영양	031-873-4001
성가대	031-873-4001	성서	031-873-4001
성서	031-873-4001	영양	031-873-4001
성서	031-873-4001	영양	031-873-4001
성서	031-873-4001	영양	031-873-4001
성서	031-873-4001	영양	031-873-4001
성서	031-873-4001	영양	031-873-4001
성서	031-873-4001	영양	031-873-4001
성서	031-873-4001	영양	031-873-4001






부록 2

주보지 사진



교회비전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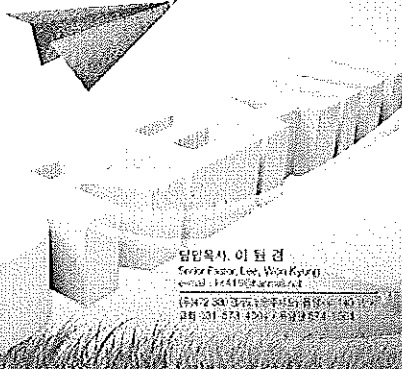


市 경천교회

Kyung Chun Church

사랑의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인사여무 것은 사랑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하되 하고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랑의 대가로 주의 사랑을 받는다."
골 3:14-15



담임목사. 이원경
Seoiz Fesus Lee, Won Kyung
cell: 1-4410-4700-101

0547-831-5711 / 0547-831-5712 / 0547-831-5713 / 0547-831-5714 / 0547-831-5715

11월 1주
경천교회
11월




市 경천교회

Kyung Chun Church


담임목사. 이원경
Seoiz Fesus Lee, Won Kyung
cell: 1-4410-4700-101

0547-831-5711 / 0547-831-5712 / 0547-831-5713 / 0547-831-5714 / 0547-831-5715

깊고 푸른 경천교회 감출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교회비전소식



100개의 신교사 / 100개의 교회 / 1,000명의 사역자 / 10,000명의 성도

(대한예수교장로회)

✝ 경천교회

Kyung Chun Church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나를 보낸산 아가 나옴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할일 그대 기뻐하시는 일을 성령으로
 나를 보내 주지 아니하시옵소서
 (마태복음 28:20)
 또 온천회를 기뻐하여
 자기 내 미쁨의 스榻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도 2:28)

담임목사. 이원경
 Senior Pastor, Lee, Won Kyung
 e-mail: kcc41@hanmail.net
 (전화) 660-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경천리 145-104
 (팩스) 671-573-4094 / (휴대) 010-1021-

부록 3

전도 플랫카드(placard)의 실제 사진

GOD BLES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 경천교회 ☎ 573-4004
1870-1871년 설립된 초대목회자 김소경 목사
1870-1871년 설립된 초대목회자 김소경 목사

심령대부흥회
 주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2014.11.10(월)-12(수)
 새벽 5:00 / 오전 10:30 / 저녁 7:30
 강사: 소진우목사
 장소: 경천교회 (573-4004)

경천교회
 대만예수교장로회 원고 부흥교회! 감동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 573-4004
 오남중학교 옆

진접교회 571-3777
 원하는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유치부어른성경학교	통영통부수원회
7.13(토)~14(주)	8.5(월)~7(수)
아동부어른성경학교	정남부수원회
7.26(금)~28(주)	8.15(목)~16(금)

사랑하는 자마다 주께로! 경천교회
 ☎ 573-4004 오남중학교 옆

HOW SPIRIT! 경천교회
 젊고 기쁨이 넘치는 바로 그 교회!
 오남중학교 옆 ☎ 031-573-4004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경천교회
 ☎ 573-4004 오남중학교 옆 (정천교회)

부록 4

중고등부 동계수련회 자료와 조직

2015년 중·고등부 동계수련회 계획안

1. 기 간 - 2015년 1월 23일(금)-24일(토)
2. 장 소 - 경천교회
3. 주 제 - 구별의 자리로!
4. 주 제 성 구 - 시편 1편 1절 - 2절

(시 1: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 1: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5. 참석예상인원 : 총 65명

○ 경천교회(45명)

교역자 : 이원경 목사, 김주진 전도사

교사 : 중등부 - 김봉한 안수집사, 박분희 집사, 이연숙 권사,
이영희 권사, 김지혜 선생, 이하경 선생

고등부 - 황영식 안수집사, 최일미 집사, 한복례 권사,
김명호 집사, 조영순 집사

학생 : 중등부 - 재적인원 18명

고등부 - 재적인원 14명

○ 진접교회(20명)

교역자 : 송일육 목사, 이하은 전도사

교사 : 중·고등부 - 서기현 집사, 장영섭 집사, 백은기 집사,
정영성 선생, 백지은 선생

학생 : 중·고등부 - 재적인원 13명

6. 소요 예산 - 세부내역 별첨 참조(참가회비: 1만원)

2015년 중고등부 동계수련회 시간표

시간	23일(금)	24일(토)	비 고
6:00		새벽예배	
7:00		개인묵상	
8:00	교회로 모여라	아침식사	
9:00	오리엔테이션 및 조별 배정	찬양과 율동	
10:00	개회예배	궁금해요	
11:00	조별소개	조별발표회	
12:00	점심식사	점심식사	
1:00	찬양 및 레크레이션	야외활동 (단체축구)	
2:00			
3:00	특 강	폐회예배	
4:00	조별모임		
5:00			
6:00	저녁식사		
7:00			
8:00	저녁집회		
9:00			
10:00	다짐의 밤		
11:00			
12:00	취침		

동계수련회 주요일정 점검사항

시간	23일(금)		24일(토)		비 고
	일정	준비사항	일정	준비사항	
6:00			새벽예배	인도: 김주진 전도사	

7:00			개인목상	-	
8:00	교회로 모여라	접수대 준비 참가비 수령	아침식사	매뉴:000 밥질 압송 (본당? 식당?)	식사 후 8:40-9: 10 공급해 요 작성
9:00	오리엔테이션 및 조별 배정	수련회 일정 설명 조배정(교사, 학생) 이름표 분배	찬 양	담당: 이하은 전도사 백은기 집사, 김진선 선생 백지은 선생, 이하경 선생	
10:00	개회예배	인도: 황영식 집사 기도: 백은기 집사 말씀: 이위경 목사	공급해요	담당: 김주진 전도사 준비물: 상자, 질문지, 블렌	
11:00	조별소개	담당: 막문희 집사	발표회	담당: 황영식 집사	
12:00	점심식사	매뉴:000 밥질 압송 (본당? 식당?)	점심식사	매뉴:000 밥질 압송 (본당? 식당?)	
1:00	찬양 및 레크레이션	담당: 김명호 집사 준비물: 문상 외	야외활동 (단체축구)	담당: 김봉한 집사 준비물: 축구공, 매듭천	소극적 아이들 은 교사들 과 짝을 맞출 것
2:00					
3:00	특강	말씀: 강미경 목사 제목: 세상, 문화 그리고 그리스도인(롬12:1-2)	폐회예배	인도: 김봉한 집사 기도: 백지은 선생 말씀: 송일욱 목사	
4:00					
5:00	조별보위	담당: 김봉한 집사 주제: 진도, 교회, 예배 선정곡: 챔피언 디지몬, 10월의 어느 날에	PC담당: 백지은 선생 사진담당: 이하경 선생 반주: 백은기 집사, 홍선정 선생 음향준비: 김명호 집사 틀링페이퍼: 김주진 전도사		
6:00	저녁식사	매뉴: 000 밥질 압송 (본당? 식당?)	MVP 선정 설문조사지: 양식 X(?) 야외활동(단체축구)시 각 조별 PT음료 준비 발표회 곡(챔피언, 디지몬, 10월의 어느 날에) MR준비		
7:00	저녁집회	인도: 김주진 전도사	차량 및 외부통제 관리: 김봉한 집사, 서기현 집사		
8:00					
9:00	다짐의 밤	인도: 김주진 전도사 *간식은 순서가 끝날 시간쯤에 반입하기로 함			
10:00					
11:00	취침	남학생: 본당 여학생: 유년부실			
12:00					

동계수련회 조별 배정계획(안)

1조(조명:)		2조(조명:)		3조(조명:)	
박문희집사		장영십집사		최일미집사	
백지은선생		이하경선생		김진선선생	
양제우		권서현		김수현	
박상원		손채영		김서현	
김웅지	고2	이도열	고2	하나경	
최규영	고2	최 건	고2	이윤아	고2
강성빈	고2	곽민욱	중2	신해찬	중2
최지호	중2	안지용	중1	고형중	중2
최윤진	중2	안지성	-	유경서	중2
4조(조명:)		5조(조명:)		6조(조명:)	
조영순집사		김봉한집사		정영성집사	
김명호집사		홍선정선생		김지혜선생	
조재영		이하연		홍정기	고3
홍성근		김나현		김민형	고2
장해민	고2	김경동	고3	허경욱	고2
신해인	고1	문경준	중3	곽민지	중3
강현지	고1	강대완	중3	김주원	중1
최현주	중2	이제원	중3	이상호	고2
김우영	중2	유경민	중3		

2015년 동계수련회 준비 사항 및 기도회 모임 일정

1. 모임 장소 : 경천교회 중등부실 및 카페, 진접교회 카페

2. 모임 일정 : 1월 15일(목) 저녁 7시(진접교회 카페)

1월 16일(금) 저녁 7시(진접교회 카페)

1월 17일(토) 오후 5시(경천교회 카페)

1월 18일(주) 오후 4시(진접교회 카페)

1월 18일(주) 오후 5시30분(경천교회 초등부실)

(수련회를 앞두고 자녀와 함께하는 기도회)

1월 19일(월) 저녁 7시(진접교회 카페)

1월 20일(화) 저녁 7시(진접교회 카페)

1월 22일(목) 오후 5시(경천교회 카페)

3. 수련회 준비 담당자

총괄준비 - 황영식, 김봉한, 서기현 집사

예배준비 - 김주진, 이하은 진도사

재정 및 각종 준비물 - 박문희, 최일미, 백은기 집사

수련회 프로그램 진행보조 - 백지은, 김지혜, 이하경 선생

식사(간식) 및 기타 - 한복레 권사, 이영희 권사, 이연숙 권사, 조영순집사, 장영섭, 정영성 집사

조별 담당 교사 - 각반 교사들

4. 각 프로그램 담당자

- 개 회 예 배 : 인도 황영식 안수집사

기도 백은기 집사

말씀 이원경 목사

- 오 리 엔 태 이 션 : 황영식 안수집사
- 조 별 소 개 : 박분희 집사
- 찬양 및 레크레이션 : 김명호 집사, 백은기 선생, 이하경 선생
- 특 강 : 송일육 목사
- 조 별 모 입 : 김봉한 안수집사
- 지 녀 집 회 : 김주진 전도사
- 세 벽 예 배 : 김주진 전도사
- 찬 양 : 백은기 선생, 이하경 선생
- 발 표 회 : 황영식 안수집사
- 야 외 활 동 : 김봉한 안수집사
- 폐 회 예 배 : 인도 서기현 집사
기도 백지은 선생
말씀 송일육 목사

중고등부 수련회 안내문

할렐루야!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그 동안 귀 자녀를 저희 경천/진접교회 중·고등부에 보내 주시고 큰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천교회 중·고등부에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이시대의 주역이 될 우리의 중·고등부 청소년들과 함께 영육간의 회복의 시간을 갖고자 아래와 같이 겨울수련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바르고 정직함과 참 진리로 이웃과 이 시대를 품는 건장한 인격체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저희 교사일동은 수련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실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녀의 참가를 원하시는 부모님께서서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녀(또는 직접전달)편에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천교회/진접교회 중·고등부를 위한 깊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빌겠습니다.

1. 일 시 : 2015년 1월23일(금)-1월24일(토)
2. 장 소 : 경천교회
3. 준 비 물 : 성경책, 필기도구, 어벌의 옷, 개인복용약품
4. 참가회비 : 10,000원
5. 분 의 : 경천교회 - 김주진 전도사 (H.P 010-3520-0181)
진접교회 - 이하은 전도사 (H.P 010-9899-4560)

----- 절 -- 취 -- 신 -----

동계수련회 참가신청서

저는 이번 경천/진접교회 2015년 동계수련회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학 생 이 름 : (싸인)


주 민 번 호
(학 생) : (보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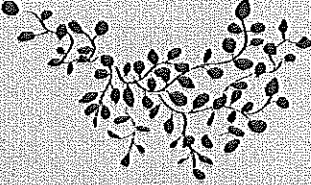
부 모 이 름 : (싸인)

연락처(부모):

부록 5

경천 밥사랑공동체-노인무료급식 사진





밥사랑공동체

노인무료급식

식사매주 목요일 12시
장소 경천교회 (573-4004)

사회에는 '끈'이 필요합니다.
계층과 계층, 세대와 세대, 지역과 지역 등
서로 돌아보아야만 서로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끈'은 '사랑'으로만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그마한 몸짓이지만 '사랑'을 담아
'작은 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971년 5월 20일 창립
경천교회
HYUNG CHUN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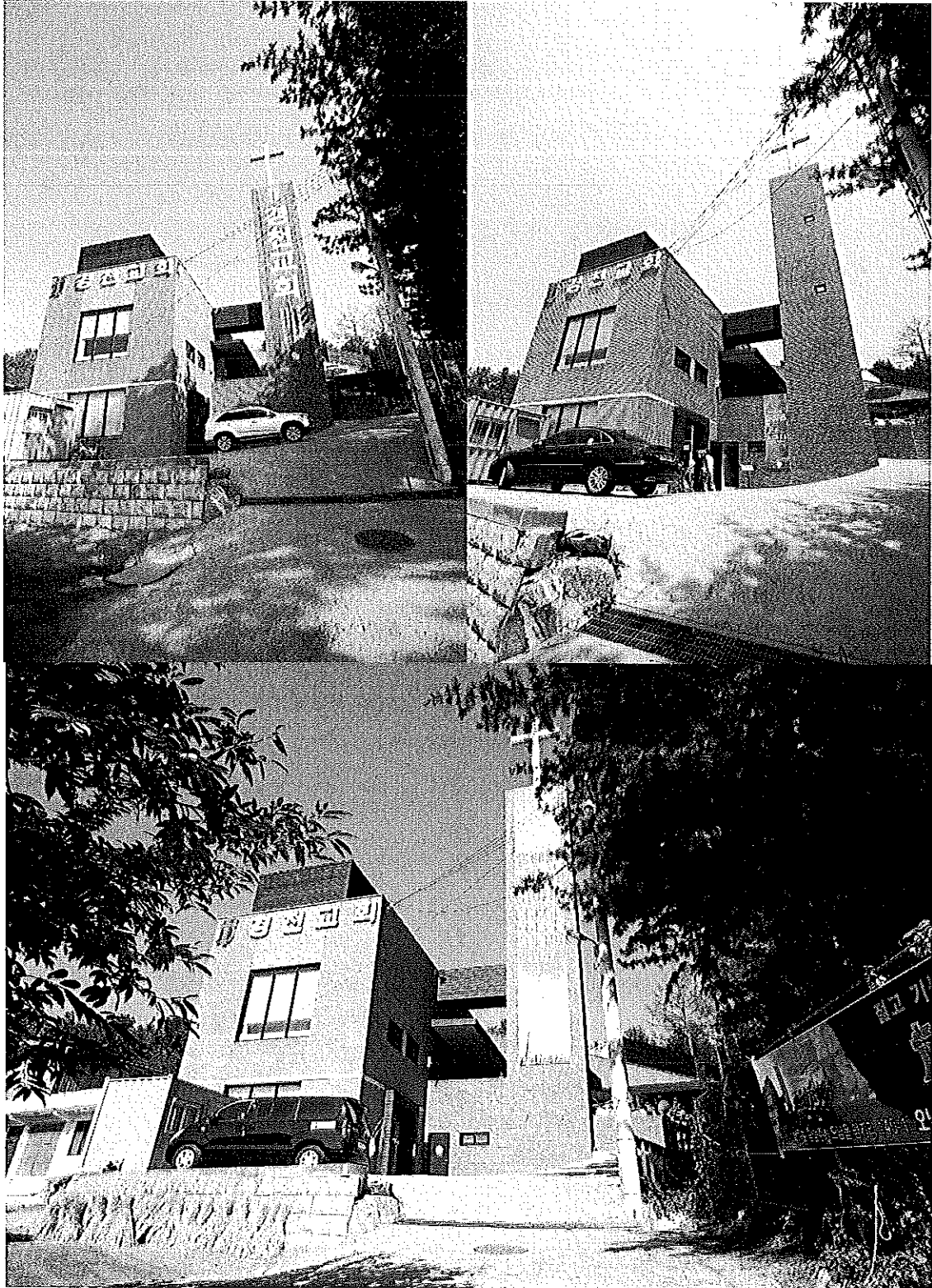
(우)472-880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40-1 / 교회 031-573-4004

부록 6

경천교회 사진







참고 문헌

1. 국내서적

- 강병도. *카리스종합주*, 제 5권, 서울: 기독지혜사, 2006.
- 권문상. *부흥 여객인*, 성남: 브니엘, 2006.
- _____. “공동체로서의 교회” 강의안;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3.
- 김상현. *전도중심교회*, 서울: 도서출판 프리셋트, 2007.
- 김송식. *교회 개척전략*, 서울: 로고스, 2008.
- 김승연.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 김종포. *대형교회 숲 사이의 아름다운 교회*,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 김창영. *기독교강요(상)*,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 _____.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2.
- 남양주시. *남양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1998.
- 남양주시지편찬위원회. *남양주시지 제 1권 역사*, 경기: 경기출판사, 2000.
- _____. *남양주시지 제 2권 문화재와 인물*, 경기: 경기출판사, 2000.
- 명성훈. *당신의 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 서울: 국민일보사, 1995.
- _____. *교회개척의 원리와 전략*, 서울: 국민일보사, 1999.
- _____. *교회개척의 원리와 방법*, 서울: 국민일보사, 2001.
- 목회와 신학 편집부. *교회개척*, 서울: 누란노 아카데미, 2010.
- 민장배. *교회개척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 배종석, 양혁승, 류지성.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3.
- 안승오.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한 핵심 원리 7가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_____.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0.
- 이상대. *교회개척 컨설팅*, 서울: 서로사랑, 2012.

- 이신건. *칼 바르트의 교회*, 서울: 한들출판사, 2000.
- 이은석. *새로운 교회 건축, 이렇게 하라*,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1.
- 장성배.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바로 세워라*, 서울: 도서출판 kmc, 2012.
- 정병관. *복음혁명을 주도하는 도시교회 성장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9.
-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86.
- 총회헌법개정위원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5.
- 최승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예배 강의안*,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3.
- 통계청. *2005년 인구 및 주택조사 보고서*, 서울: 통계청, 2005.

2. 번역서적

- Barna, George. *21세기 교회를 붙잡아라*, 탁영철 역, 서울: 배다니, 1993.
- Blackaby, Henry T.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교회훈련부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 Bounds, E. M. *기도의 능력*, 이정윤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 _____.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용복 역, 서울: 규장, 2009.
- Clowney, Edmund P. *교회*, 황영철 역, 서울: IVP, 1998.
- Erickson, Millard J. *교회론*, 이은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 Hall, David. W. & Peter. A. Lillback. *칼빈의 기독교 강요신학*, 나용화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09.
- Hull, Bill. *온전한 제자도*, 박규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Kraemer, Hendrik. *평신도 신학*, 유동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Küng, Hans.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철곡: 분도출판사, 2012.
- Lohfink, Gerhard.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정한교 역, 철곡: 분도출판사, 2013.
- Rayburn, Robert G. *예배학*, 김생달, 강귀봉 공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2.
- Saliers, Don E. *기록한 예배*, 김운용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0.
- Schwarz, Christian A. *자연적 교회성장*, 정진우의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13.
- Shenk, David & Albin Stutzman. *초대교회의 모델을 따라 개척하라*, 최동규 역, 서울: 배다니, 2004.
- Sider, Ronald.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다*, 김선일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2

- Snyder, Howard. *교회 DNA*, 최형근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3.
- Towns, Elmer and Porter Douglas, *사도행전식 교회개척*, 김재권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 Van Engen, Charles.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 1995.
- Wagner, C. Peter. *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홍원팔 역, 서울: 도서출판 알뜰기획, 1994.
- _____. *교회 개척 이렇게 하라*, 서로사랑 편집부 역, 서울: 서로사랑, 2007.
- Warren, Rick. *목적이 이끄는 교회*,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6.
- Watson, David. *교회의 진정한 표상*, 오광만 옮김, 서울: 여수분, 1991.
- _____. *제자도*,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13.
- Webber, Robert E.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설교*, 이승진 역, 서울: CLC, 2012.
- White, James F. *기독교예배학 입문*, 정장복, 조기언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3.
- Wright, N. T. *예배를 발하다*, 최현만 역, 서울: 에클레시아북스, 2012.

Vita of
Won Kyung Lee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Kyungchun Church, Namyangju.

Personal Data:

Birthdate: April 28, 1962
 Marital Status: Married to Ill Youg Song with three children
 Ha Eun, Ha Kyung, and Do Yeol
 Home Address: 112-1102 Daerim APT. Yangji-ri Ohnam-eup
 Namyangju, Gyeonggi-do
 Denomination: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dained: May 6, 1996

Education:

B. Th.: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Yangpyeong, 1990
 M. Div.: Presbyterian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3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5

Personal Experience:

1999 to present: Senior Pastor
 of Kyungchun Church, Namyangju
 12/1995 to 11/1999: Assistant Paster
 of Light & Salt Church, Namyangju